

2017

창립 35주년 특집호

따뜻한 마음·참다운 이웃·살만한 세상을 알리는

선의 소식

Sunny Korea News

발행일		2017년 12월 5일
발행처		한국선의복지재단
발행인		문영기
기획·편집		한국선의복지재단 홍보팀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83-10
전화		02-884-5510
팩스		02-884-5512
홈페이지		www.sunnykorea.org
편집인쇄		하은기획(02-2264-5170)

CONTENTS

한국선의복지재단은

- 2 선의은행 소개
- 3 한국선의복지재단 슬로건
- 4 설립목적·핵심가치·비전
- 5 조직도·국내 외 지회·법인 및 사업장
- 6 한 눈에 보는 선의
- 8 발간사 _ 문영기 이사장
- 10 축사 _ 여주기 前 이사장, 하숙란 운영이사회 회장, 장상 前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창립 35주년 특집

- 13 한국선의복지재단 운영이사회 특별대담

한국선의복지재단 둘러보기 (1982~2017)

- 44 한국선의복지재단 둘러보기

선의관악종합복지관 둘러보기 (1987~2017)

- 67 선의 관악종합사회복지관 둘러보기

선의 35년을 되돌아 보다

선의의 사람들

- 73 한국선의복지재단의 첫번째 간사를 만나다 - 이명위 현 부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76 멘티와 함께 성장한 시간 - 최혁준 학습자원봉사자
- 78 복지관에서 제 2의 인생을 찾았어요! - 해피시니어스쿨 장옥자 어머니
- 80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 - 한미경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장
- 82 내가 함께 한 선의 - 지성은 한국선의복지재단 해외사업 팀장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

- 84 Ashley Miles와 선의재단을 추억하며 - 정세용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심장과 의사
- 86 84차 필리핀 심장병 어린이들과 함께 한 시간 - 박유정 한국선의복지재단 간사
- 92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 김종태 선교사
- 94 베트남 다낭시 선의 유치원 - 함미선 한국선의복지재단 간사
- 96 다시 만난 아이들 - 박유정 한국선의복지재단 간사
- 98 볼리비아 해발 4,150M 고산지대에서 온 편지 - 윤도근, 박향림 선교사

선의 이야기

- 100 하나님이 이끄신 뉴욕 선의 선교회 15주년 기념식 - 최문섭 뉴욕선의선교회 회장
- 102 선의와의 만남은 우크라이나에 복이 되었습니다 - 김태한 선의 우크라이나 지부 대표
- 104 생명을 살리는 오케스트라
- 106 중국 내몽고 민족대학교 한국어반 이야기
- 108 베트남 월드프렌즈 엔지오봉사단 활동수기 - 구자익 NGO 월드프렌즈 봉사단원
- 110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주민전시회 '함께하니 좋구나'
- 112 파란손을 위한 기적

2017 한국선의복지재단 사업보고

해외사업보고

- 116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무료 수술사업
- 124 해외아동 수술 지원사업
- 128 베트남 법인
- 130 미국 뉴욕법인
- 132 미국 LA지회
- 134 우크라이나법인

국내사업보고

- 136 경주·대구·경남지회 보고
- 138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 140 선의어린이집
- 142 선의영동연수원

후원자 명단



한국선의복지재단은

이웃을 위한 은행,
선한 마음을 모아 아름다운 변화를 만드는

선의은행을 아시나요?

끝없는 사랑
Endless Love over 35 years

| 선의은행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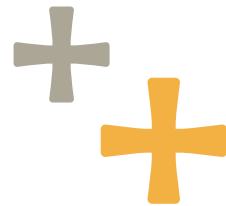
큰 돈이 아니더라도, 선한 마음을 모으면,
이웃에게 큰 힘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시작한
아주 특별한 은행입니다.

어떤 이들은 재능을, 어떤 이들은 기술을, 어떤 이들은 기도와 물질을 예탁하면,
도움이 절실한 이웃을 찾아내어 선의를 전달하는 일을 해 온 곳이 바로 선의은행입니다.

굶는 이들에겐 밥을, 공부가 필요한 학생에겐 장학금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한 부부들을 위한 결혼식을 열어주기도 하면서
선의은행은 **작지만 아름다운 변화**들을 만들어왔습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더 귀한 선물을 전하기 위해,
한국선의복지재단 또한 더 많은 이웃을 찾아가고 더 많은 아픔을 품기 위해,
선의은행은 한국선의복지재단이 되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생명을 선물**하는 수술을 지원하고,
가난한 지역의 이웃들을 따뜻하게 돌보면서,
한국선의복지재단은 오늘도 선한 마음을 배달합니다.



| 한국선의복지재단 슬로건

흠어 구제하게 되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잠언 11:24~25절〉

| 설립목적 핵심가치 비전

설립목적

사람에게는 본인의 행복과 사회 및 이웃을 위해 보람된 역할을 하려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마음을 어떻게 살리고 키워 가야할 지, 너무 작은 것이라 망설이거나, 나 혼자 돕는 것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은 누구나 참여하기 쉬운 방법으로
개인, 단체, 기업들의 선한 마음을 예탁받아
국내외 소외되고 그늘진 곳, 가난하고 병들어 고생하는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의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선의 복지재단의 활동은
첫째 사랑 봉사 나눔을 실천하고,
둘째 사람과 사람, 기관과 기관의 협력 네트워크를 이루어가며,
셋째 의료, 문화, 교육을 통하여 새 생명을 주고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핵심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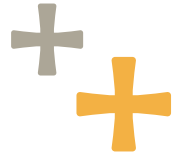
이웃을 향한 끝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

비 전

네트워킹을 통한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1. 더불어 사는 선의*
- 2. 발이 되어 뛰는 선의*
- 3. 꿈꾸는 자를 만드는 선의*

| 조직도



법정이사회

이사장 | 문영기

이 사

여주기, 박영숙
이필남, 이영희,
정진호, 조경옥,
하상진

감 사

윤기원

운영이사회

前 이사장 | 여주기

회장 | 하숙란

이 사

고인아, 권분선, 권수현, 권향자, 김옥훈, 김에스터,
김정혜, 문정인, 문정임, 박숙자, 박영숙, 박영희,
신귀례, 여옥기, 오혜선, 이필남, 이영희, 이기자,
이미경, 조경옥, 조문자, 주기옥, 최정남, 최정애,
황명덕

| 국내 외 지회/법인 및 사업장

한국선의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83-10
T. 02-884-5510, F. 02-884-5512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 16길 44-9
T. 02-886-9941~3, F. 02-874-4048

선의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 16길 44-9 1층
T. 02-885-9770

경주지회

경상북도 경주시 승삼남길 23-4
T. 054-773-8212, F. 054-773-8213

경남지회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동 예술촌길 44호
T. 010-9508-6586

대구지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3동 1040-24번지
T. 053-761-9975

영동선의연수원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괴목산막로 495
T. 043-744-8438

뉴욕법인

35-74 162St Flushing N Y 11358
T. 516-721-8101 F. 347-732-9459

LA지회

1020 N. Richman Knolls, Fullerton,
CA 92835, USA
T. 714-773-5578 714-726-5948

베트남법인

LOTS No. 71, 74 Linh Trung Commune,
Thu Duc District Hochiminh City, Vietnam
T. 093-561-2492

우크라이나법인

Prospect Pravdy 31A KB. 251 Kiev Ukraine
T. +38067-130-8089

| 한 눈에 보는 선의

1980

1982. 12

한국선익은행중앙회 발기



1983. 12

창립1주년기념 자선 바자회



1984. 10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가



1987. 12

선익은행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003. 11

한국선익복지재단으로
법인명칭변경



2002. 05

미국 뉴욕법인 설립



2001. 12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무료 수술사업 시작



2005. 03

베트남 다낭시
선익태권도 체육관 준공



2005. 09

서울신학대학교 부천종합사회복지관.
부천소사자활후견기관, 부천어린이집 기증



2005. 11

하노이 선익적십자병원 개원



2017

2016

해외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지원 300명 수술



2013. 01

선의 우크라이나법인 인준



2011. 07

하노이 석선선의적십자병원
이동진료사업 시작



2011. 04

해외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지원 200명 수술



끝없는 사랑
Endless Love over 35 years

1990

1990. 08

선익은행
부천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995. 04

경주지회 창립



1995. 04

선의 영동 연수원 개원



2000. 08

대구지회 창립



2000. 07

코리아 크리스천
게스트하우스 개관



2000. 03

경남지회 창립



2000

2007. 12

한국선의복지재단 창립 25주년



2008. 08

미국 LA 지회 창립



2008. 08

Sunny Korea Cup
다낭 전국 태권도 대회 개최



2010

2009. 12

해외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100명 수술 기념 하트온 발간



2009. 06

중국 톈랴오 내몽고민족대학교
한국어학과 개설 협약



한국선의복지재단
발간사

창립 35주년을 맞으며





| 발간사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선의복지재단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세 분의 아름다운 마음이 모여 시작 되었습니다. “흠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잠언 11장 24절)는 말씀을 삶으로 보여 주셨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선의를 예탁 받아 소년소녀 가장 돕기를 시작으로 국내 외로 그 사랑의 손길을 펼쳐 왔습니다.

1982년 선의은행으로 시작된 한국선의복지재단은 1987년 선의관악 종합사회복지관을 설립하였고 1990년대는 경주, 경남, 영동, 대구 등 전국으로 뻗어 나갔습니다. 2000년대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목표를 가지고 베트남, 중국, 몽골, 우크라이나, 필리핀 등에서 심장병 어린이 초청 무료수술 사업을 시작 하였습니다.

더불어 베트남 법인, 미국 뉴욕법인, 우크라이나 법인을 설립하여 현지인들과 함께하는 Global NGO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135개 회원) 회장단체로 한국의 개발 NGO 단체를 이끌어가는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35년이란 오랜 세월동안 아프고 어려운 이웃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봉사해 오신 이사님들의 나이가 이제는 70대 80대가 되셨습니다. 이사님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모습처럼 진정한 사랑은 서서 주는 것이 아닌 낮은 자세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사님들의 귀한 삶의 모습을 본받아 후대에까지 전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35년도 시작하신 이사님들의 설립정신과 후원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한국선의복지재단으로 발전해 가겠습니다.오늘의 한국선의복지재단이 있기까지 후원과 봉사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올 35년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 이사장
문 영 기 드림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흠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잠언 11:24~25)

위의 말씀을 표어로 선의복지재단은 35년 전, 여러 선의의 사람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 그늘지고 소외된 곳곳에 작은 등불이 되자라는 소박한 꿈과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이 어려운 세파에서도 35년이란 긴 세월동안 뜻을 굽히지 않고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저의 힘이 아닌, 섬기며 봉사해주신 가족분들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크든 작든 마음을 담아 기부해주신 분들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운 수술을 믿음으로 감행한 의사들의 확고한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기도 용사들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긴 세월 동안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기쁜 일도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35여 년 동안 스물 다섯 분의 운영이사들 중에 여덟 분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야만했던 슬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눈물의 기도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 나가면서 보석같은 값진 보람을 느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기도로, 몸으로, 물질로, 계획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건강과 형통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신 건강과 열정을 다 바쳐서 여생을 돈이나, 명예가 아닌 선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고자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께 감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선의복지재단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따뜻한 가슴으로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 열 걸음을 걷는 것보다, 열 사람이 한 걸음씩 걷는다면 우리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한국선의복지재단은 두렵지 않습니다!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감격스럽고 기쁜 이 날!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전) 한국선의복지재단이사장
(현) 의료법인 선의요양병원이사장

여 주 기 드림

선의를 후원자로 기도와 후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선의 가족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국선의를복지재단 창립 35주년과 복지관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선의를복지재단과의 아득했던 인연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의 청춘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남편의 직장을 따라 시작되었던 서울생활 속에서 교회를 만났고, 이곳에서 제자훈련을 통해 성경공부를 하며 예수님의 삶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놀랍도록 좋은 삶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 후, 교회 안에서의 섬김을 넘어, 세상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던 중, 발족된 지 2년이 된 (구)선의를은행의 소문을 듣고 문을 두드린 것이 인연이 되어, 33년이라는 세월동안 선의의 가족이 되어 지금까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복지가 전무했던 시절, 작은 뜻을 품고 시작한 선의를은행의 이웃 사랑에 감동하여 나라를 운영하시던 지도자들까지도 행사 때 마다 축사와 격려사로 작은 섬김에 큰 힘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 당시 사회 구조상 감히 근접하기 어려웠던 사회 지도층들의 부인들 또한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선의를은행에 모여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선의는 물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믿고, 세상에 선의를 전달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과, 건강한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며 선의와 동행하고자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선의를은행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게 된 것이 더 없이 값진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원회 총무, 회장, 이사로 역임해왔던 일들, 남편을 따라 잠시 경남 진주를 내려간 그 곳에서 선의 역사상 처음으로 지회를 창립했던 일들, 그리고 그 지회가 오늘날 18주년을 맞이하게 된 일, 그리고 다시 서울 본회로 합류한 뒤 화요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운영이사회 회장으로 섬기게 된 33년의 세월은 눈물 없이는 이야기 할 수 없으며, 선의를복지재단이 저의 정신적인 유산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선의의 흘러 간 역사 속에 묻혀 있지만, 무엇보다 한 사람의 깊이 묻혀 있던 의식을 깨워 가난한 자들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성경의 말씀 속에 그 가난한 자들과 보폭을 같이 떼며 주님 걸어 가신 그 길을 만분의 일이나마 따를 수 있음이 인생에 가장 잘 한 선택이었음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까마득한 신앙의 선배들이며 보배로운 여주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의재단 창립자 세 여인의 믿음, 그리고 선배 회장님들, 이사님들이 계셨음이 무척 자랑스럽고, 선의의 후원자님들 동지들이 제 옆에 계셨음이 35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 가장 귀하고 소중한 재산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홀쩍 70을 넘겨 버린 나이가 마냥 아쉽습니다.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선의의 후원자로 기도와 후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선의 가족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한국선의를복지재단 운영이사회 회장
하 숙 란 드림

선의를 씨앗을 뿌리는 대열에 함께 하신 많은 선의의 일꾼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하며 축하합니다.



성서에 나오는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는 유명합니다. (마 13:10-23, 막 4:1-9, 눅 8:4-8) 하나님의 일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씨를 뿌리느냐, 어디에 씨가 떨어져서 얼마나 잘 성장하느냐가 핵심입니다.

35년 전, 선한 뜻이 담긴 씨가 뿌려졌습니다. 여주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세 명의 헌신과 기도에도 의해 이 땅에 “선의”가 심어졌습니다. 새벽제단 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의 눈물을 뿌리셨을까요?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18:20) 라는 주의 말씀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씨가 싹이 트고, 자라면서 선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기적의 열매였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지극히 겸손하게 작은 힘을 모아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돌보고 살리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누구나 선의를 지니고 태어납니다. 그 선의의 특징이 무엇인지 얼마나 큰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여인 세 명이 일곱 배로 성장한 21명이 마침내 “선의은행”이 태어나는데 주역을 담당하였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한국선의복지재단의 모태입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은 1990년대는 전국으로, 2000년대에는 세계로 선의의 줄기가 뻗어나가는 동력이 됩니다.

선의은행의 첫 열매는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을 소년, 소녀 가장을 돕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선의의 행진은 개발도상국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를 돕는 사업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국내에서, 국외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선의의 넋쿨은 기적 그 자체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리라”(마25:23) 는 주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의가 어떻게 뿌려지고 성장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뻗어나가는 기적을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선의를 필요로 하는 우리 사회에, 선의를 기다리는 복녔땅에, 그리고 빈곤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세계 곳곳에 사랑과 헌신이 담긴 선의의 씨앗이 뿌려지고 성장해서 넋쿨처럼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면서, 우리는 저절로 “할렐루야”를 고백하며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선의의 씨앗을 뿌리는 대열에 함께 하신 많은 선의의 일꾼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하며 축하합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 창립 3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현) 세계교회협의회 공동회장
장 상 드림



창립 35주년 특집

한국선의복지재단 운영이사회 특별대담

한국선의복지재단 창립 35주년 기념 운영이사회 특별대담

한국선의복지재단
운영이사회
특별대담
창립 35주년 특집

한국선의복지재단 창립 35주년 운영이사회 특별대담

1982년 세 여인의 기도로 한국선의복지재단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후로 35년이 지난 2017년 지금까지 그 선한 발걸음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창립 35주년을 맞이하여 그 발걸음의 시작을 함께 하신 이사님들과 지금껏 함께 걸어오고 계신 이사님들을 모시고 우리의 지난 걸음을 돌아보며 앞으로 걸어갈 길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생한 이사님들의 육성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지면 관계상 필요한 편집만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해오신 이사님들의 삶을 통해 서른다섯살 청년 한국선의복지재단이 나아갈 길을 바라봅니다.



하숙란 회장

한국선의복지재단은, 올해 창립 3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또 35주년 후인 70주년 후를 고민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35주년을 맞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비상

하여, 다시 새롭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선의재단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때는 나도, 그리고 여기 모인 운영이사회 이사님들도 대부분 하늘나라에 있겠지만, 우리의 다음세대, 미래세대들이 선대의 강점이나 좋은 점을 잘 본받고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새로운 꿈을 꾸는 그런 우리의 후배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일, 우리가 미처 생각도 상상도 해낼 수 없는 일들이 선의재단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선의복지재단의 초창기 멤버는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을 이웃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한국선익은행중앙회 후원회 날**

일시: '94. 10. 13(목) 오전 10시30분

장소: 선익은행종합사회복지관 2층강당



한국선익은행 중앙회 후원회 날

만들고 나서 이년 후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 동안에 많은 분들이 스쳐갔지만 저는 지금까지 남아있네요. 30여년 전 그때 당시에는 요즘같이 평준화가 된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복지라는 것이 전무할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잘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살고, 못사는 사람들은 너무 못 살았던 세상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부인들이 선의재단에 와서 좀 좋은 일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함께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수 없이 바뀌던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냥 집에서 살림하며 살고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선의재단에 가보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저에게 상대적인 빈곤감이 굉장히 심했어요. 어느 날 집에 돌아오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를 그만둘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애야 너는 건강과 몸이 있지 않니? 나를 위한 봉사가 꼭 돈

으로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이런 응답을 받고, "죽어서 썩을 몸을 아끼면 무엇하리?" 라는 말이 생각나면서, 그 당시 어릴 때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는지, 그때 하나님께 고백한 그 마음 그대로 지금까지 봉사하게 하셨네요. 그래서 아무리 몸으로 발로 뛰어도 많이 피곤치 않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답니다.

저는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섬기고 봉사했지만 제 마음 속에 무언가 부족함을 느껴 더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지인으로부터 선의재단 이야기를 듣고, 당시 마포 신원 에벤에셀 사옥 3층에 있던 선의재단 사무실에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후원회에서 총무를 맡아 한국도자기 김동수 회장님 부인 이의숙 회장님, 김혜자 회장님, 이경식 회장님등 3분의 후원회 회장님을 보필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학생 자원봉사 훈련, 아동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자원봉사자 야



87년 하숙란 운영이사회 회장 (오른쪽 5번째)

유회 행사 등등 참 신나게 일했습니다. 우리 선의재단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좋은 재단에 또 좋은 이사장님과 또 우리 이사님들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큰 은혜이고,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모든 일은 한 우물을 파야 된다고 하는데, 뭔가 뜻을 정했으면 지구력 있게 지속적으로 움직여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직원분들과 젊은 이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만남, 같이하는 이 시간이 결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영원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숙란 운영이사회 회장 경남지회 활동사진



한국선이은행 중앙회 정기 강연회

조경옥 이사

저는 정말 여 권사님 두 자매를 만난 것은, 정말 제 인생의 가장 축복 중에 하나예요.

여옥기 이사님께서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구역장이셨고, 저는 교회에 구역원이었는데 여옥기 이사님과 한동네에 살았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저를 포섭하고 가까이 하시면서 지극히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좋았는지 그냥 무조건 따랐어요. 그 당시 작은 여권사(여주기 직전 이사장)님 막내아드님이 고3이고, 새벽밥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교회가 멀어서 새벽기도가기가 힘들니까, 권사님 댁에서 새벽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주기, 여옥기 이사님이 이웃에 살았기 때문에 권사님 댁으로 가서 아침에 새벽에 싱크대 앞에 담요



하나 깔고 셋이 앉아서 기도하고, 안방에 식구들 자니까 조용하게 찬양하면서 춤추면서 그때가 너무 생생해요. 셋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했어요. 아마 그 세월의 시작이 37년이 되었을거예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당시 두 여 이사님들께서 얼마나 예쁘셨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도 외우고, 기도하고 그 새벽 기도 모임이 선의재단의 모태가 된 거죠. 정말 두 자매를 만나서 저는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참석한 것 뿐 인데, 두 분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한 것 뿐 인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선의재단 식구들 이리 오너라' 하면 거기에 깰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요,

1997년 우리나라가 모두 너무나 어려웠던 IMF 시절에 우리 이사님들이 같이 모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기도회를 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뭘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들어서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기울게 생겼잖아요



조경옥, 여옥기, 여주기 이사 (왼쪽 순)



후원회 야유회

그러니 우리 선의재단은 당장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즉석에서 모금을 했는데 8천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 그 자리에서 바로 모금이 되었어요. 김봉전 이사님은 살아계실 때 후원금 많이 내셨어요. 그 때는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도하고 모금하고 그래서 너도 나도 지갑 다 털어내고, 통장도 내고,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도 뽑아서 내고 그랬어요. 그 돈을 가지고 봉천동 지역에 거의 일 년 동안 미역 사주고, 김장해서 나눠주고, 집집마다 연탄 가득 쌓아주고, 방세 내주고, 다 쓰러져가는 집에 도배 해주고. 또 어려운 사람한테 그때 에스터 목사님이 집도 한 채 후원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쉬운 게 기록도 없고 사진도 없네요. 이게 너무 아쉬워요. 우리는 지금처럼 조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움직여서 일을 하고 했으니까. 그냥 말로만 이 얘기를 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쉽네요.

여욱기 이사

저도 이제 권사님 만난 것이 복인 것 같고, 저희 두 자매만 예배를 드리고 만나고 하다가 조경옥 이사님께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승낙을 하셔서, 같이 집안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지 묻고



선의은행 중앙회 창립 10주년 기념



선의은행 운영이사진

한국선의복지재단 창립 27주년 기념식

일시 : 2009년 11월 30일(월) 장소 : AW컨벤션센터



한국선의복지재단 창립 27주년 기념



물었지요. 그때 '한 사람이면 패 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 하느니라'라는 성경구절을 외우면서 셋이서 기뻐하며 선의재단

이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모이다가 나중에 일본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는 시작하더라구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 사람을 모이게 해주시고,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 지금까지 따라오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세 사람이 친자매보다 더 돈독한 자매지간이라고 생각해요.

선의은행을 시작하게 된 개인적인 한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일본에서 일본 선의은행을 보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안개가 너무나 심하게 끼었고 비행기

프로펠러가 잘 안 돌아갔었어요. '아 이 바다에서 죽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떨어지면 고기밥이 되는데, 세상에 나왔는데 저는 아직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얼마동안 비행기가 다다다 엔진 소리 같은 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하고, '아 이제 준비하고 바다에 떨어지려고 하나보다', 했는데 다시 방송이 나오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했죠. '아직 젊은 나이에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항의하듯이 울면서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데 이 사람들도 다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죽이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리고 나서 밖을 보는데, 안개는 끼었지만 안개가 하늘을 비춰주면서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딱 이렇게 내 눈앞에 나타나는데, 눈을 감아도 '사랑' 떠도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를 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살려만 주세요. 아버지 허락하시는 대로 일하겠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조

사회복지법인 한국선익은행 중앙회 창립기념 자축회
1984.12.1



한국선익은행 중앙회 창립기념회

금 더 있으니까, 프로펠러가 제대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원래 선익은행이 일본에서 시작한 단체였는데, 우리도 선한 뜻으로 그 단체가 하는 좋은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하셨어요. 갑자기 그 일이 생각이 나네요.

내가 선익재단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두 글자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고 지금까지 일해 왔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일하겠다고 생각했던 계기였지요.

오혜선 이사

이 시간에 이러한 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이끄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기독교 전국 연합회에 나가서 여주기 이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원로목사님 정진경 목사님께서 선익재단 3주년 행사에 말씀을 전하셔서 조선폰텔에서 하는 큰 행사에 갔었지요. 그후에 여주기 이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선익복지재단 총무님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서 그 자리를 잠깐 메꾸어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그 큰 자리에 있을 수 있을지 감당이 안 되서, '지금 대답을 드릴 수는 없고 기도해보겠습니다' 하고는 집에 가서 기도하고 두렵기는 하지만 '좋은 일이니까 제가 자격은 없지만 총무를 결정할 때 까지만 업무를 보겠습니다' 하고는 일을 시작했지요.

초창기 마포 신원 에벤에셀 사옥 303호실에 가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업무보다는 무엇에 제가 선익재단에 매료되었냐면, 이사님들 몇 분이 밥을 전기밥솥에 사무실에다 해놓고 반찬을 가지고 오셔서 10층 강당에서 성경공부를 하고, 식사를 나누고 하는데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여주기 이사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존경하게 되었지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마음으로 몸으로 직접 섬기시는 모습

을 보면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섬김의 삶을 많이 배웠답니다. 첫째로 제일 존경하는 부분은, 여주기 이사님은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으시잖아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하셨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두번째는 무슨 일이건 가장 먼저 기도 하시는 모습이에요. 기도부터 시작하지 않은 적이 없으세요. 당신의 회사를 경영 하면서도, 연초 시무식 때도 돈이 움직이고 중요한 본인 회사 먼저



가서 예배드리실 법도 한데, 거기 안가시고 항상 복지관에 먼저 오셔서 예배드리고 회사는 다음이었어요. 우리 여회장님(여주기 전이사장)은 당신이 모범이 되고 겸손하시고 그래서 통솔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20여명 정도의 이사님들이 계셨는데 한 번도 이견이 있어서 충돌하는 적이 없었어요. 그냥 만장일치로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데는 이끌어 가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항상 그제 밑바탕이 돼서 우리 재단이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회장님(여주기 전이사장)께서 우리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하나님님이 보낸 사람은 계속 있을 것이고 하나님님이 보낸 사람

이 아니면 아무리 우리 눈에 좋아보여도 결국엔 사라진다. 그러니 사람에게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일하는 거다. 이런 얘기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지요.

제가 총무로 일 하던 그때는 이사님들이 전화 한통만 드리면 불길같이 쫓아오셔서 어디에 화재가 났다 하면 당신 것다해서 도와주러 가고, 어디에 수재가 났다 하면 그제

다 제쳐놓고 거기 와서 도와주고 그러셨지요. 재정도 이사님들 호주머니 털어서 가져가서 일하고 지원하고 했었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감격스러웠던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부친의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별 보고 출근하고 달보고 퇴근하시던 어렵게 사역하시는 분이셨어요, 어느 날 그분이 선의은행에 오셔서, 아들이 고려대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이사님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김봉전 이사님 등 몇 이사님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등록 마감 한 시간 전에 고려대학교 등록을 시켰던





일이 있었어요. 그 후에 그 아드님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나 같은 사람들을 선의재단에서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고 매달 만원씩 후원을 시작하더라구요. 이런 일로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께서 눈을 실명하게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하더라구요, 그때도 몇 이사님들이 후원해주셔서 1차 수술, 2차 수술까지 지원하게 되고 그렇게 그 사모님이 시력을 잃지 않게 되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에는 우리 선의재단 이사님들은 정말 곳곳마다 발로 뛰어 찾아가서 도와주시곤 하셨지요.

목포, 무안, 신안 쪽에 결손가정에서 점심을 굶는 아이들이 있다는 뉴스를 보고 당시 고문이셨던 이형자 권사님이 우리 재단에 후원해주셔서 후원금을 전달하려고 목포시청에서 선정해준 아이들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빵이랑 우유 등 간식을 나눠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빵을 안 먹고 들고만 있길래 어서 먹으라고 했더니, 집에 동생이 있는데 가져가서 동생과



나눠먹으려고 안 먹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들 신나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말이에요. 형제애에 감동도 되고 먹지 못하는 불쌍한 아이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사회 때 보고 드렸더니 우리 이사님들이

그 동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후원하도록 결정해주셨지요.

7주년 행사를 하고 마련된 기금으로 그당시 아주 가난했던 지역인 난곡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패딩 점퍼 500벌을 후원한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오리털 잠바가 귀했던 시절이라 아이들이 그걸 입고 너무 좋아서 운동장에서 춤을 추는데 그때 그 모습이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가슴 아픈 보람으로 남아있어요.

또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재단 이름이 한국선의복지재단이지만, 초창기에는 '선의은행'이 었기 때문에 '돈 빌려달라'는 '대출해달라'는 그런 사람들도 사무실에 많이 드나들었거든요, '은행이라면서 왜 빌려주지 않느냐?', '우리가 은행에 선의를 저금하면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 등 재미있는 일들도 많았었죠.

선의은행이 처음 체계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시작한 것이 바로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이었어요. 매스컴에서도 우리 복지사업이 여론화 되기 시작했었어요. 지금은 '소년소녀가장 돕기'라는 말이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고 국가에서 지원도 잘 해주게 되었지만, 그때는 그런 말이 전혀 없을 때였어요. 집도 가정도 없는 아이들을 성산동 연립주택에 방 한 칸씩을 주어 세 아이를 살게 하고, 선의은행으로 들어오는 후원금으로 아이들을 데려다가 외환은행 통장을 만들어 쥐어주고 한 달에 한 번씩 후원금을 전달했었어요. 그 아이들의 이름이 아직도



한국선의은행 중앙회 창립기념회

기억나요. 박미선, 진승원... 소년소녀가장 돕기 사업이 우리 재단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조금씩 여론화가 되자 사회적으로 이 좋은 사업이 활성화 되어 나타나더라고요.

선의재단에 몸을 담고 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약하고 참 연약했는데 이사님들과 함께라면 뭐든 두려울게 없고, 함께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기쁨과 감사를 느끼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의 건강도, 신앙도 회복되고 여러 가지로 감사가 넘쳤지요. 우리 선의복지재단 자문위원이시던 정진경 원로목사님께서 여성들이 앞에 나서고 실천하는 행위를 보시면서 여자들이 약한 것 같은데, 조용히 보람 있는 일을 하는걸 보니 여자들이 사실은 더

강하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칭찬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여주기 전 이사장

저는 우리가 어떻게 선의 은행을 시작했는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선의은행을 시작한 게 35년 전인데, 그 십 여 년전에 우리가정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남편이 사업에



한국선의은행 중앙회 정기강연회



한국선의은행 중앙회 운영 이사진



부천시 한사회복지관 개관식 1990년

실패를 해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요. 당시에 남아 있었던 건 남편과 저, 그리고 딸 둘에 아들 셋 뿐이었어요. 딸들은 중학생이고 아들들은 초등학교생이었어요.

몽땅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노량진에 사는 친구네 집에 겨우 방을 얻어가지고 방 한 칸에 일곱 식구가 살았었는데 그때 제게 하나님께서 안계셨다면 저에게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 오산리에 있는 기도원에 담요 하나 들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 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거지예요' 집에서 비가 새서 비를 줄줄 맞으면서도 기도 했는데, 내가 그때 기도 제목이 우리 아들딸들만 아무 일 없이 잘 자라게 해주시면, 나 하나님께 기쁜 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만 좀 지켜주세요' 그 기도만 했어요. 사업 일으켜달라는 기도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저 '우리 아들 딸들 무사히 잘 크게 해달라고 이거 하나 그 기도만 들어주시면 내가 좋은 일 하나 하겠습니다' 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하고 아이들도 잘 자라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누가 갑자기 선의은행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이것이 일본에서 시작했는데, 한 구좌 얼마씩 돈을 예탁하고, 또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기술이 있으면 기술을 예탁해서 무엇이든지 남을 도울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은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은행은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선의은행 창립1주년 기념 바자회



베트남 다낭시, 선의 태권도 대회 개최

누구나 마음 속에 갖고 있는 선한 뜻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은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겠구나 싶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던 여옥기 이사님, 조경옥 이사님과 함께 선의은행을 창립하게 되었어요. 선의은행의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기쁘게 호응해주셔서 덕분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지요.

이필남 이사

저는 뭐 한 것도 없어서 제가 드릴 말은 없는데, 오혜선 이사님 말씀처럼 여주권사님을 만나게 제 인생의 행운이라고 생각하구요. 그때 제가 초창기에는 많이 어렸던 것 같아요.



당시에 조선폰에서 바자회 한다고 해서 뭣도 모르고 봉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돌아가신 동대문에서 무대의상, 웨딩드레스 등 사업을 하시던 나비패션 김연분 회장님이 그때 선의재단에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들었어요. 김 회장님 덕분에 조선폰 바자회가 열리게 되었고, 또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못하고 사는 가난한 부부들을 위해 드레스도 무료로 대여해주셔서 우리 선의재단에서 무료 결혼식을 올려주었지요. 그때는 저희 교회에서 여전도회 남전도회에서 후원해서 선의관악종합



결혼식 지원사업



결혼식 지원사업

합사회복지관 어르신들 잔치도 해드리고 참 재미있었습니다. 하숙란 회장님이 후원회를 맡아 일하실 때 저도 후원회원으로 후원자의 날도 준비하고 야유회도 준비하며 신나게 일했었지요. 또 감사했던 게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무언가 돕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좋은 이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선의재단을 통해



선의은행 창립 1주년 기념 바자회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82세 할머니 John과 Charls와 함께 (신촌성결교회)

봉사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이야기가 조경완 전 회장님께서 ‘코끼리 똥만 똥이나 파리똥도 똥이다’ 이 얘기가 생각나면서, 비록 작은 부분이라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겐 늘 감사했습니다. 오혜선 이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어떠한 가치 그 이상으로 이사님들 곁에서 보고 배웠다는 사실이 지금에 와서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문정인 이사

저는 재단이 생길 무렵 20대 중반이었어요. 그 때 선의재단 창립멤버이신 여주기, 여옥기, 조경옥 세 이사님께서 저희 집 부엌에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예수를 믿는다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모습을 몸소 체험했지요. 그렇게 자라



왔는데, 사실 저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것만 알았지 사실 선의재단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며 자라왔는데, 이제 선의재단이 시작할 그 20대 중반이었던 시절에서 지금은 벌써 일곱 명의 손주를 갖게 된 나이로 선의와 함께 제 인생도 커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용산에 선교사님들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를 시작했던 것이 참 감사하고 기억에 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용산에 가지고 있던 사육이 상계동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육을 저에게 빌려달라고. 저를 주시면 선교사님들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를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여주기 이사님께서 벌써 그거 세 나갔다고, 월세도 이미 들어온 상황이라 안 된다고 하셨는데,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기도원 원장님을 모시고 와서 기도하고, 한 교회 친구인 신귀례 이사님과 함께 땅 밟기 기도를 했었는데, 여주기 이사님께서 어느 날 부르시더니, 니가 기도를 해서 그런지 이 사람들이 월세로 안 들어오기로 했다고, 그래서 ‘뭘 할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라’ 라고 하셔서 그때 게스트 하우스가 잘 자리 잡고 있는 태국으로 황명덕 이사와 함께



창립 29주년 감사예배

출장을 다녀왔어요.

태국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묵으면서, 저희들이 보고 느끼고 관찰하고 한 것을 그날 저녁에 침대에 돌아눕고 누워서 설계도도 그려가며, 그렇게 돌아와서 여주기 이사님께 설명도 하고, 우리가 함께 그린 설계도도 드리고 했었지요. 여주기 이사님께서는 공동 욕실이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하셔서 저희가 출장 다녀온 보고를 드리며 설득했지요. 그렇게 해서 2000년 여름에 욕실겸 화장실이 달린 방 7개의 게스트하우스가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재단 일이 늘 그랬지만 돈보다 늘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기도로 일을 추진했

지요. 화장실 7개를 새로 만들고 방들을 리모델링 해야 하는데 예산은 없고, 기도하면서 고민할 때 마침 신귀례 이사님이 야구모자를 눌러쓰고 청바지에, 일꾼들보다 더 일꾼같이 복장을 하고서는 새벽같이 나오고, 저녁에 들어가고 그렇게 건축공사현장에서 인부들과 함께 일을 도맡아 그 일을 해내서 게스트하우스 공사가 무사히 진행되었지요. 정말 신귀례 이사님께서 안 계셨으면 어떻게 이 게스트하우스가 지어졌을지.

그렇게 게스트하우스가 지어지고, 황명덕 이사와 함께 게스트하우스를 꾸려나가는데, 황명덕 이사는 게스트하우스에 묵는 선교사님들과의 관계를 아주 잘 맺어



코리아 크리스찬 게스트 하우스 정문



문정인 이사(왼쪽에서 두 번째)와 이명위 간사(오른쪽 첫 번째)

가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불만이 생겼었어요. 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지저분하고, 더럽게 사용하고 가실까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황명덕 이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그 일을 해 나가더라구요. 그 뿐만 아니라, 황 이사 아이들이 그 당시 초등학생들인데 학교 갔다 오면 게스트하우스로 엄마 보러 오고.. 그리고 황명덕 이사 남편 문영기 이사장은 게스트하우스로 장을 봐서 와 가지고 거기서 선교사님들과 같이 밥을 해먹기 시작하더라구요. 황명덕 이사는 항상 게스트하우스에서 십 년간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회에 오는 분들을 위해 저녁밥을 지었었고, 그 때 시작한 화요기도모임이 지금까지도 재단을 중보하고 있지요. 또 그때부터 기도가 쌓여서 선의재단의 해외사업이 시작되고 해외지부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사님들이 또 믿고 제게 맡겨주셔서 제가 선의관악복지관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사실 돌아보면 잘 하지도 못했지만, 십 사년 동안 일을 하고 지금은 물러나있는데 뒤를 돌아보면 세월이 이렇게 갔구나 싶네요.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이사님들이 한결같이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있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은혜스럽고 저도 그 모습 닮아가고 싶습니다. 요즘 저는 저희 집안의 재정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이게 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저희 자손들이 선대에서 보고 배우고, 우리 선의재단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다음 세대

로 흘러간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복이고 감사입니다.

신귀례 이사

선의재단은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 부분에 속합니다.

특히 선의재단을 창립하신 여주기 이사님은 저의 멘토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저는 꼭 여주기 이사장님의 삶을 닮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도와 헌신으로 재단을 세우신 일,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귀한 사역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자녀교육도 잘 시키고, 어려운 기업도 잘 일으키신 그 일들을 보면서 저도 똑같이 이 세 가지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닮고 싶은 1 순위 스승이며, 선배이며,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은 분이 여주기 이사님이십니다. 저도 지금은 미약하지만, 여주기 이사님을 본받아 유어프렌즈라는 NGO를 세워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와 동남아 저개발 국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있어 부지런히 돈을 버는 일은, 좀 더 어렵고 힘든 개발 도상 국가들을 돕기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으로 부지런히 모아 쏟아 붓고 있





코리아 크리스찬 게스트 하우스 개관 축하예배

습니다. 이런 시작의 모든 것들은 바로, 제가 선의재단에 들어와 나름대로 헌신하며 이곳에서 제 삶의 비전을 보았고 도전을 받아서 오늘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의재단에 와서 오늘날 복을 받은 것은 게스트하우스 공사할 때 저의 헌신을 하나님이 보신 것 같아요.

그때 문정인 이사과 용산 게스트하우스 설립진행 당시 돈은 없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견적을 받았는데, 견적서 하나는 1억2천, 하나는 1억4천이 나온 거예요. 제가 그때 망했었거든요. 정말 돈 한 톨 없는 상황이라 물질적으로는 후원을 할 형편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예전에 제가 저희 집을 한 번 지어 본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이 번에 사용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내가 만사 제쳐두고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당시에 우리가 몸으로 뛰고 움직여서 딱 반절 6천5백만원으로 집을 거의 새로 지었어요. 현장으로 자재 가게로 뛰어다니느라 끼니도 놓치고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었었는지 물건을 사면서 제가 쓰러지기도 했었지요. 돈은 1원도 내지 못했지만, 하나님 제가 6천만원은 했다고 생각해도 되죠? 라고 물으면서 새벽부터 현장에서 인부들과 같이 살았지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신 것 같아요. 그것을 시작으로 저 스스로가 점점 발전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요즘은 공부해서 남 준다고 하는 말처럼, 저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남을 돕기 위해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주시 이 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문자 이사

저는 제가 알던 선교사님이 용산 게스트하우스에 묵고 계셔서 그 분을 만나려고 처음 게스트하우스에 방문한 것이 선의재단을 만나게 된 시작입니다. 그때 게스트하우스를 왔더니 가정집같이 너무나 깨끗하고 편리하고 잘 관리가 되어있어서 선교사님들이 모두들 기쁘고 감사하게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관리하시는 분께 이 게스트하우스가

NHA TẬP LUYỆN VU TAEKWONDO

TỔ CHỨC SUNNY KOREA TẶNG - 선의복지재단에서기증함 - DONATED BY SUNNY KOREA



누가 운영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선의재단에서 하는 것이고, 여주기 권사님이 대표라고 알려주었어요. 또 화요일 저녁마다 기도회가 있다고 해서 한 번 참석하려고 왔더니 누가 오후에 시장을 잔뜩 봐와서 부엌에서 일하더니 맛있는 저녁을 한 상 차려놓는데 그 사람이 여주기 권사님의 며느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주기 권사님을 뵈고 선의재단 이야기도 듣고 기도회도 참석하다가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합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여권사님의 권유로 이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주기 권사님을 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지 늘 배웁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전자침으로 해외선교를 다니다보니 선의재단에서 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지만, 2005년에 베트남 하노이에 하노이 적십자 선의 병원 기공식, 다낭 선의 태권도체육관 준공식 등에 참석했던 감격스런 날은 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선의재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단이라 믿으며 늘 우리 선의재단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을 때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꼭 참석하여 함께 할 수 있음이 기쁘이고 감사입니다.

최정남 이사

이사님들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시고 전해주시는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곤 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증거하시고 삶으로 살아내는 분들의 이야기라고 생각되니 직접 보고 듣고 배우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에요.



제가 선의재단을 알게 된 계기를 전해드릴까 해요. 저는 밖에서 일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제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평생 세상 일에만 쫓기며 살다가 사랑의 교회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나, 왜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밖에서 일만 하던 제가 삶에서 쫓기는 일을 다 접고 교회의 건축기도 현장에서 매일 기도를 시작했는데 우연히 거기에서 하숙란 회장님을 만나게 되었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궁금하기는 했지만 제가 아무나에게 묻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해 들어보니, 아 사람들이 다 자기 각자의 생각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러면 제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잘못한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확증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다시 부른 이유는, 너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 이제 움직이라고 부른 것이다’라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점점 저를 기도하는 자리로 오게 하시고 점차 거의 매일 나가서 기도하고,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제 삶이 회복이 되었어요. 교회가 완전하게 회복을 하면 뭔가 내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하숙란 회장님께서 선의재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막연하게 내가 알고 있고 NGO단체를 통해서 선한 마음들이 뿌려져서 나가는 것은 아는데, ‘아버지 그러면 제가 이걸 하라고 부르시는건가요? 저 아무것도 모르고 마음 조금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관심 있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발을 내딛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선의재단에



84차 필리핀 심장병 어린이 방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제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데, 지금 이사님들의 이야기들, 너무나 잘 살아내신 모습과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무너져요. 이런 분들을 제가 어떻게 따라가요, 믿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온 분들을 제가 감히 닮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나 세상일에 쫓기고 많은 시간들을 세상에 쏟고 살아왔는데 내 목은 때를 어떻게 벗기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주시면 조금이라도 닮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따라가보려구요.

최정애 이사

저는 경남 진주에 있는 선의 경남지회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숙란 회장님께서 남편 따라 진주로 오시고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시면서 회장님을 통해 선의와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적부터 구제하는 일에 많은 힘을 쓰셨었는데, 사업이 잘 될 때는 금전적으로, 또 사업이 안 될 때는 여유가 되는 분들에게 돈을 얻어서, 또 당신 몸으로 구제 봉사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많이 보아왔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나병환자 도우시고, 또 어려운데 찾아가시고 하시면서 저에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 너무나도 익숙했어요. 그래서 선



의재단 이야기를 듣고 ‘그래, 우리 어머니처럼 나도 하지!’ 하면서 시작한 선의재단이었어요. 하회장님께서 경남지회 회장님 하셨을 때, 지회에서 열정적이고 재미있게 운영을 잘 하셨어요. 선의재단은 기독교가 모태인 재단이지만 경남지회에 불교 신자인 김정숙 이사님이라고 계셨지만, 종교를 떠나서 지회에서 하는 일들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도와주시고 하셨던 기억도 나요. 경남지회에서는 독거 노인분들을 위해 김치도 담고, 또 할머니들께 내복도 선물하는 등, 재미있고 좋고 즐거운 일들이 많았었어요. 추운 겨울에 내복을 선물해



경남지회 성북비전문화센터 방문



경남지회 독거어르신 방문



경남지회 무의탁 독거 어르신 방문

드리려고 어르신 한분께 찾아갔는데, 어떤 한 집에 가니까 할머니가 울면서 자기는 자식들한테도 받지 못한 사랑을 처음 받았다 하시더라구요. 정말 나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일을 하며 살았던 세월이 감사합니다. 제가 무언가를 바라고 시작한 일은 아니지만, 처음 선의은행 이야기를 듣고 시작하게 되었을 때, 아 내가 선의은행에 선한 일을 저금해놓았다가 나중에 나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구요. 그런데 정말 제가 선의은행에 저금한 선의보다 더 많이 돌려받았던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선의 경남지회에서 회장을 하게 되던 해에, 남편이 갑자기 간 이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 저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구요. 그때 어머니가 남편 소식을 듣고는 쓰러지시고, 하숙란 회장님 말씀이 그때 저희 집을 보면 하늘 밖에 뚫린 곳이 없는 것 같다 하시면서 사방이 막혀있다 할 정도로 꽉 막혀있었어요. 한 달 이내로 전격성간부전증이라고 서울대병원에서는 수술을 안하면 죽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집도 다 팔고 애쓰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돈 좀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남편 수술만 좀 시켜주세요, 수술만 시켜주시면 된다’는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도와주셨어요. 하회장님께서 그 당시에 수술비로 3 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셨어요. 집이 다 기울어져 가는데 누가 저희를 보고 그 큰 돈을 빌려주시겠어요? 정말 감사했지요. 그리고 ‘아, 내가 예약해두었던 작은 선의를 내가 이렇게 크게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편 수술 이후에 얼마 안 되서 시어머니 돌아가

시고, 또 제가 갑상선 암이 걸려서 수술 받고 하는 참 어려운 과정을 지나왔지만, 지금은 서울까지 이사 와서 딸 아들들 다 결혼시키고, 손자손녀 재롱 보며 모든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특히 하회장님한테 특별히 감사한 것은 때론 제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넘어질 때 끌어당겨주시는 분이예요. 한번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끝까지 내버리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존경합니다! 하회장님. 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작은 일이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선의재단으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이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그동안 선한 일들 해오신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많이 배우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시다.

고인아 이사

저는 진주에서 하권사님 만나고, 하권사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와서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해서 앉아있었는데, 그 후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어 이 자리까지 와서 여러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부끄러울 뿐입니다. 부지런히 앞으로 쫓아가겠습니다.

하숙란 회장

선의회단 지금의 정관엔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중앙회 이사로 5년 이상 함께 하다가 사업이나 이사로 인해 지방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선의회단 지회를 하나 결성할 수 있었어요. 제가 경남 진주에 가보니까 옥봉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주로 많이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집이라고는 하는데 비닐을 덮어가지고 난생 보지도 못한 희안한 집들이 골목골목 구석구석 있는데 할머니들이 연탄불을 피워놓고 그 안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자연스럽게 '여기도 선의가 필요하겠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당시에 지방교회에서는 선교는 하는데 구제를 안하더라구요, 구제비가 없더라구요 처음에는 제가 구제를 시작하니까, 지역 교회의 이해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도 겪게 되었지만, 선의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통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경남지회가 벌써 1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인아 이사님과 최정애 이사님은 제가 서울로 다시 돌아온 후에 경남지회에서 회장을 맡아서 잘 섬겨주셨지요. 처음 경남지회를 시작할 때 정성욱 이사님 한 분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온 걸 보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후원아동 가정방문



콘미전 회원들과 함께



82차 필심어 운영이사회 방문

문정임 이사

저는 열심히 활동을 하지 못해서 할 말이 없지만, 또 여기 이사님들 뵈니까 정말 존경스럽고 나도 더 나이 들기 전에 저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구요 여기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본이 되고 제 삶의 멘토들이 여기 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 키우고 이러는 건 누구나 하는 것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한 가지 정도는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필요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혜선 이사

우리 선의복지재단 이사님들은 무슨 일을 하자 하면 그냥 함께 기도하고 나서 바로 행동을 보여주시곤 했어요. 지금부터 20여년 전에 우리 이사님들이 다같이 충북 영동에 있는 여육기 이사님 댁을 방문했는데, 그때 마침 그 지역 국회의원도 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분이 우리 선의복지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듣고는, 요즈음 학생 수가 적어져서 폐교되는 초등학교 같은 교육부 기관들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사회사업이나 보람있는 일을 하는 단체에게는 줄 수 있어도, 영업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겐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



2011년 5월 야외 운영이사회



선의연수원 개원 1993



중앙회, 지회 연합수련회 (영동 연수원)

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이 근처에도 폐교가 하나 있다고 해서 그저 한 번 보러 갔어요. 지금은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이지만, 그 때는 교장선생님이 조경에 취미가 있으셨는지 나무 하나도 너무 예쁘고, 예쁜 색시를 화장시켜 숨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 이사님들이 모두 이 폐교에 반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그 자리에서 각자 주머니 돈을 털어 모금을 하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영동연수원이랍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연수원이나 청소년수련

관 같은 시설이 드물었기 때문에 우리 연수원에서 각 교회의 부서별 수련회도 많이 하고 우리 이사님들도 자주 가서 철야 기도회도 하고 했었지요.

김옥훈이사

저는 여주기 이사님과 한 교회를 다니면서 여 이사님이 선의은행이라는 좋은 일을 하는 기관을 만드신다고 함께 하자고 말씀하셔서 선의은행 창립 멤버가 되었지요.



선의연수원 개원 1993



장애인 보육시설 방문



야외운영 이사회

그때부터 30년을 열심히 활동하고 이제는 나이도 들고 건강도 좋지 않아 80살 때 운영이사는 은퇴했어요. 80년대 초반에도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누구를 도와주면 내가 저 사람 도와줬는데 하는 생각, 또 도움 받은 사람도 내가 저 사람한테 신세를 졌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서로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선의은행을 통해서 도우면 그런 부담이나 편견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선의재단 초창기에는 우리 이사들이 다 같이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열심히 뛰어다녔지요. 김봉전 이사님께서 봉고차를 후원해주셔서 그 차를 타고 전국 어디든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직접 갔지요. 저는 앞에 나서는 건 잘 못해요. 하지만 뉴스에서 사건, 사고를 보면 ‘어디 물난리가 났다, 어디 화재가 났다 하는 뉴스를 보고 모금합시다!’ 해서 후원금 모으고 이사님들과 직접 다녀오고 했답니다. 그때는 보육원, 소년원, 양

로원 등등 우리가 찾아다니며 봉사도 많이 했지요. 십 여 년 전에 대구 지하철 참사 뉴스를 보고 우리가 이제 늙어서 몸은 못 가도 물질로라도 돕자고 해서 제가 먼저 얼마 후원금 내고 그런 제안은 앞서서 잘 했지요. 그래서 여러 사건, 사고 지역에 후원금들을 모금해서 보내곤 했어요. 영동연수원을 구입할 때도 가서 보니 나무를 어찌면 그렇게 예쁘게 잘 가꿔 놓았는지 나무 값만 해도 큰 돈이겠다 싶어서 제가 앞장서 사자고 제안을 해서 그 밤에 우리 이사님들이 한 마음으로 모금을 하고 구입하게 된 거지요. 돌이켜보면 참 보람 있었고 감사하고 잘했다 싶네요.





김옥훈 이사님 장애인 보육시설 방문 및 레크리에이션



장애인 보육시설 방문



故 김봉전 이사님이 후원해주신 12인승 봉고차 앞에서



창립 3주년 기념 소년소녀가장 돕기 바자회(웨스턴조선호텔, 1985)



창립 11주년 기념행사(63빌딩 국제회의장, 1993)

이미경 이사



어머님을 보면서, 한결 같이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겨 오신 어머니가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동역하신 분들과의 우정도 부럽습니다.

십 수년간 힘들다 안하시고 아버님 병수발 하신 것도, 이웃을 섬기시던 훈련의 열매인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이사로서 준비가 안되었고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 이사님들의 수고와 직원분들의 헌신을 보면서 격려와 감사를 보내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선한 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박영희 이사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만나게 되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하숙란 회장님으로부터 선의재단 30주년 때 초대되어 선의재단에 대해 알게 되고, 훌륭하신 어머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많은 생명을 살려 주님께 영광 되이 쓰임 받으시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고 저도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사님이란

존칭 듣기에 송구할 따름입니다. 교회에서 맡고 있는 사역과 겹쳐 빠진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늘 반갑게 대해 주시는 따뜻한 사랑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더 잘 섬길 수 있는 가정의 여건을 허락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5주년을 맞이한 선의재단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선의재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축하드립니다.





2005.11 하노이 선의적십자병원 개관

항명덕 이사

저는 1986년 결혼과 함께 선의재단을 만났습니다. 아이들 낳고 키우느라 뒷전에만 있다가 1995년 경주지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소년소녀 가장 아이들은 서울 아이들보다 더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의를 기쁘게 실천하시는 경주지회 이사님들과 아이들 한 명, 한 명 사랑으로 돌보며 보람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쉼터, 코리아 크리스찬 게스트하우스를 섬기게 하셔서 450여분의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교사님들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의재단을 세계를 향해 나가게 하실 때 베트남을 시작으로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 필리핀 등 선의가 필요한 곳들을 발로 찾아다니며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초청 무료 수술 사업은 지

금까지 300명이 넘는 저개발국가 아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오늘 35년 전에 연약한 여인들의 기도로 시작된 우리 선의재단이 지나온 길들을 우리 존경하는 이



사님들의 육성으로 다시 돌아보며, 지금 우리 재단이 하고 있는 선한 일들의 뿌리에는 오직 순수한 선의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있었음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35년 후에는 저도 후배 이사님들에게 이렇게 자랑스럽고 존경받는 선배 이사로 기억되도록 더욱 열심히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지회 이사진 한국선의은행 중앙회 창립 17주년 기념식 참석



소년소녀가장 선의은행 방문의날(경주지회)



경주지회 창립 2주년 기념행사





창립 35주년 특집

선의재단 둘러보기

한국선의복지재단
선의재단
둘러보기

창립 35주년 특집



한국선의복지재단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1982년

한국선의복지재단의 탄생

매일 새벽, 여주시 전(前) 이사장님 댁에서 세 분의 이사님들의 기도로 만들어진 선의은행. 뜻 있는 이사님들이 한 분 한 분 모여 1982년 선의은행 중앙회를 출범시켰고, 1984년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누구에게나 보람된 일을 하고 싶다는 선의(善意)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여하기 쉬운 방법으로 선의를 예약 받고, 그 선의가 필요한 곳을 직접 찾아가 전달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선의은행(현 한국선의복지재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선의은행은, 작은 선의의 마음들을 모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소년 소녀가장돕기사업을 진행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 활발한 사업을 펼쳤습니다.



84년 12월 한국선의은행 중앙회 창립기념회



83년 웨스틴 조선호텔 창립기념바자회 여주기 전 이사장

한국선의복지재단
선의재단
둘러보기

창립 35주년 특집



한국선의복지재단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1987년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개관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선익관약종합사회복지관 (구 봉천동 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



선익관약종합사회복지관(구 봉천동 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

1995~2000년

경주지회, 경남지회, 대구지회 창립

10여 년 동안 서울 선의은행중앙회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해 온 이사님들 중 지방에 내려가는 분들이 생기시면서 경주, 경남, 대구 각 지역에 선의은행 지회가 창립되었습니다.

경주지회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을 중심으로, 경남지회는 독거노인 돌봄사업, 노인요양시설 방문봉사를, 대구지회는 장애인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현재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주지회 사회복지관 1주년 기념식



경남지회 사업사진



경주시회 경주시사회복지관

한국선의복지재단
선의재단
둘러보기

창립 35주년 특집

1995년

선의영동연수원 개원

1995년 개원한 영동연수원은 충북 영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종 과실나무로 뒤덮인 무공해 청정 산골마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지역 내 독거 어르신들께 밀반찬 제공 서비스와 지역주민들에게 강당 및 운동장 대여와 같은 공간 제공으로 지역구성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선의 영동연수원 정문



선의 영동연수원 운동장



선의 영동연수원 강당

한국선의복지재단
선의재단
둘러보기

창립 35주년 특집

2000년

코리아 크리스천 게스트 하우스

한국을 방문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건립하여 섬티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을 후원하고자 하는 기관, 개인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선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코리아 크리스천 게스트하우스 오픈 축하예배



코리아 크리스천 게스트하우스 전경



코리아 크리스천 게스트하우스 오픈 축하예배 _ 여주시 직전 이사장

2001년

해외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 지원사업, 아동수술지원 사업 시작

2001년 3명의 베트남 아이들의 선천적 심기형을 고쳐 생명을 살리는 일을 시작했던 한국선의복지재단은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9개국, 342명의 아이들의 수술지원을 진행하며 작지만 꾸준히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해외아동수술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발걸음을 움직입니다.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 지원사업



해외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입국 환영



여주시 직전 이사장님과 하숙란 운영이사회 회장의 기도



운영이사회 아동수술지원사업 대상 환자 수가르마 방문

2002년

미국 뉴욕법인 창립 / LA 지회 창립

2002년 5월 한국선의복지재단과 뜻을 같이 하는 교민들의 꾸준한 기도모임 끝에 설립되었습니다.

뉴욕지역의 노숙자 사역, 청소년사역, 북한선교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고있으며, 2007년부터 뉴욕 선교사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발을 더 넓혀, 2008년 8월에는 미국 LA지회를 창립하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단체나 개인을 선정하여 지원하고있습니다.



뉴욕 선교사의 집 게스트하우스 외관



2009 선의복지재단 LA지회 창립 1주년 기념식



2008 미국 뉴욕 선교사의 집 확장 후원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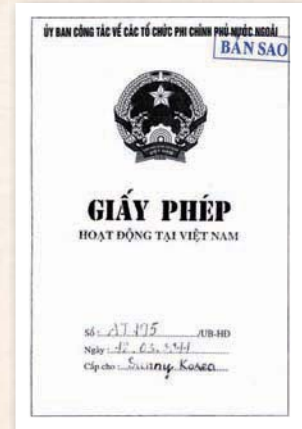
한국선의복지재단
선의재단
돌러보기

창립 35주년 특집

2002년

베트남 내 해외 NGO등록

2001년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지원을 시작으로 좀 더 구체적인 베트남 지원사업을 위해 베트남 내 해외 NGO로 인준되었고, 2002년 베트남 정부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베트남 내 해외 NGO 'Sunny Korea' 등록

베트남 다낭시 선의 태권도 체육관 준공

2005년

2005년 다낭 체육국의 요청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 협력 차원에서 선의 태권도 체육관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2008년에는 전국 규모의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낭 선의 태권도 체육관 준공식



다낭 선의 태권도 대회 (다낭시 태권도 대표선수들과 함께 한 선의재단 이사진)



다낭 선의 태권도 대회

2005년

하노이 썬선 선의 적십자 병원 개원

2001년 부터 베트남 선천성 심장병 아동들의 수술 및 후원을 지원하면서 취약한 의료환경에 노출되어있는 주민들을 알게 되었고, 빈곤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병원을 건립하였습니다.

병원 개원에 이어 2011년 부터는 무료이동진료사업을 시작하였고, 올해 2017년에는 초음파 진단기를 기증하고, 베트남아동보호기금(NFVC)과 협력하여 선천성 심장병 아동 발굴 및 사후관리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노이 썬선 선의 적십자 병원 전경



하노이 썬선 선의 적십자 병원의 무료 이동진료차량



찾아가는 이동진료서비스



심장병 초음파 진단기 전달식

2009년

중국 내몽고민족대학교 한국어강사 파견

2009년 중국 톈랴오시 내몽고민족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문화교류를 위해 한국어 강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까지 한국어 교육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560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교환학생사업, 장학금 지원사업 등의 사업들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 내몽고민족대학교 한국어 교양 수업



중국 내몽고 민족대학교 한국어반 장학금 수여식



중국 내몽고 민족대학교 한국어반 장학금 수여 학생들과 함께

2013년

우크라이나 출판사업 및 교육사업



2013년 설립된 선의 우크라이나 법인에서는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정신적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가정 내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 실직으로 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등 정신건강 문제를 극복해 낼 수 있게 도와주는 교양집과 목상집을 정기적으로 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심장병 어린이 수술지원사업과 고려인을 위한 건강검진 그리고 한방의료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선천성 심장병 아동수술지원사업



우크라이나 목상집 교양서적 출판사업



우크라이나 목상집 교양서적출판사업



창립 35주년 특집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둘러보기

한국선의복지재단
선의관악종합
사회복지관
둘러보기
창립 35주년 특집

1987년

선의 관악종합사회복지관 개관

소년소녀가장 돕기를 시작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 돕는 일을 했던 선의 은행은 한 후원자의 선의로 선의복지관을 지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어려운 이웃들의 판자촌이 무리를 이루고 있던 봉천동 쪽대기 동네에 1987년 드디어 봉천 종합사회복지관 (현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을 열게 되었습니다.



87년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기공식

1990년대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개소

1992년에는 재가복지봉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

이어 1994년에는 한국마사회 지원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매일 점심식사를 제공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결식을 예방하였습니다.

희망의 집 개소

1990년대 말, IMF 금융위기라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실직 노숙자들이 급증하였고, 이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노숙인쉼터 '희망의 집'을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실직여성가장의 취업을 위해 총 8개 과정으로 구성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개소



경로식당



노숙인쉼터 희망의 집



실직여성가장의 직업훈련프로그램



◀ 방과후교실 '세움교실' 개소



▶ 노인기능특화사업
어르신 프로그램 진행

2000년대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방과후교실 개소

맞벌이 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 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의 방임이 우려되었고 이에 방과후교실 '세움교실'을 개소하였습니다. 안전한 공간에서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활동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아동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선의요양센터 개소

인구고령화문제가 대두되었고 사회적 욕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치매노인보호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후 선의노인요양시설로 명칭을 변경하여 치매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노인기능특화사업 복지관 선정

2002년, 복지관에서 진행된 노인복지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서울시 지정 노인기능특화사업 복지관이 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에는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평가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0년대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누리센터 개소

2012년 복지관 주변 임대단지 내에 별관인 '누리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누리센터에서는 지역주민과 베품시장, 문화나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호리목 우리마을 축제 개최

2013년부터 '호리목 우리마을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약 3,000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마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었고 친목을 다지며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되었습니다.

이웃관계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 진행

이웃관계가 더욱 풍성해지고 인정이 넘치는 동네를 위해 인사캠페인, 주민동아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캘리그라피, 수채화, 요리 등의 프로그램이 구성되었고 작품전시회 개최를 통해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고 이해하면서 좋은 관계를 다져갈 수 있었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진행

개인, 가족이 당면한 심리,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례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고 상담 및 격려와 지지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별관 누리센터 개관식



2015 호리목 우리마을 축제



◀ 어버이날 행사 '다 함께 '딩실딩실 쇼'

▼ 동네아이들이 함께 모여 노는 1박 2일 골목야영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2017년

이웃과 더 가까운 미션과 비전

'기독교 사랑의 정신으로 함께 가꾸는 공동체 세상 추구'의 미션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복지관', '지역주민 간의 좋은 관계를 다져가는 복지관',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복지관'의 비전을 세웠습니다.

인정이 넘치는 지역사회

지역의 공동체와 상호 연대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웃관계를 주선하며, 인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목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힘써 일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창립 35주년 특집

35주년을 되돌아 보다

| 선의의 사람들

|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

| 선의이야기



한국선의복지재단
35주년을
되돌아보다

창립 35주년 특집

| 선의의 사람들

한국선의은행의 첫 번째 간사, 이명위 관장과 함께 한 인터뷰

현 부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Q 관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재단의 모태인 '한국선의은행'의 첫 간사님으로 활동했던 이명위 관장님을 찾기 위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명위 관장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의은행은 저에게 고향이고 친정 같은..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은 곳이에요. 저의 첫 직장이었거든요. 제가 86년 2월 1일 날 채용이 되어, 4년 6개월 동안 몸을 담은 곳이었어요.

Q 관장님께서서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첫 선의은행 간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의은행에 입사하게 되셨나요?

이명위 관장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사회사업학과 1회 졸업생 인데 어느 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중에 제가 1회 졸업생이니까 선배도 없고, 날 끌어 줄 이도 없으니 걱정이 되는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 내내 채플실에서 기도했어요. '여성들이 일하는 곳, 기독교 기관인 곳, 사회복지를 하는 기관'에 가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학과장님께 연락이 왔어요. '너를 어느 곳에 소개했으니 한번 가봐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여주시 前 이사장님께서 직접 면접을 보셨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고는 출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너무 기쁘고, 눈물이 났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드린 대로 이런 기관에 나를 보내주신 것에 너무 기쁨에 차서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Q 그리고 입사하게 된 후에 어떤 일을 담당하셨나요?

이명위 관장 그래서 이제 선의은행에 딱 들어갔는데 어머니.. 사회복지사는 나 혼자이고, 슈퍼비전 줄 사람도 없고, 국장님 한 분, 경리가 한 분 있었는데 내가 중간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거예요. 여주기 前 이사장님께서 '너가 사회복지사로 전공했으니깐 너가 알아서 다해라' 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 그렇지, 내가 사회복지사로 내가 4년 전공했고 이분들은 사회복지의 '복'자도 모르는 분들이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때 부터 내 일에 대한 주인의식이 생겼던 것 같아요. 32년 전 간사였을 때나, 관장이 된 지금이나 내 마음이 한결 같이 관장이라는 마음으로 일했던 것 같아요. 슈퍼비전이니 뭐니 이런 것 없이, 오로지 개척정신으로 일했던 것 같아요.

선의은행에서는 당시 여주기 前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몇 퍼센트 안에 드는 엘리트 계층의 여성들이 사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여 선의은행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조직해서, 법정이사회와 운영이사회로 나누었고 상당히 쟁쟁하셨던 법조인들, 기업인들 학자분들이 이곳에 이사님으로 들어오셨어요.

당시 이사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원이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제가 물품을 전달 할 사회복지시설 리스트를 만들고, 불출대장을 만들고, 후원 받아온 옷가지들, 수많은 물품들을 모자복지시설, 고아원, 양로원 이런 곳에 바로 연결을 해서 가져다 주는 활동들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강연회를 매월 했어요. 강연회를 하면 약 100명 정도가 모였었는데, 그럼 여주기 前 이사장님께서 강사님 뭐니 다 섭외를 하시면, 그럼 공문 문서 만들고 DM발송하고, 현수막 만들고 붙이고 식사준비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준비하곤 했었어요.

그렇게 초창기 선의은행 일은 운영이사회 약 25명 정도와, 후원자원을 연계하는 것, 한 달에 한 번씩 강연회하고, 제가 강연주제를 받아오고, 공문들 발송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저는 '아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구나' 그때는 내가 너무 뭐가 된 것 처럼 좋았죠. 즐거웠던 일이었어요.

Q 선의은행에서 일하시면서 감명 깊었거나 의미 있던 에피소드들이 있으셨나요?

이명위 관장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이사회 이사님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셨지만,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절대 낭비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사님들께서 직접 도시락 밀반찬 다 싸서 가지고 오셔서, 낭비하지 않고 자기 자원을 자발적으로 나누는 것에 참으로 감명 깊었어요.

또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가, 1987년에 봉천5동 복지관을 짓던 일이었어요 우리 여주기 前 이사장님은 매일 새벽마다 봉천동에 가서 복지관터에서 기도하시며 그렇게, 기도로서 복지관을 짓게 되었죠.

그래서 마포에서 봉천동으로 사무실이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서 일하면서 두 번째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울고 그랬었어요. 내 것도 아닌데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지금 보면 낡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30년전 그 당시에는 무너지고 판자촌 같은 곳에서 가장 좋은 벽돌 집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서비스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내 집도 아닌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지금도 그 기억이 평생 가더라고요.

봉천동에서는 아동복지, 청소년, 가족복지 사업 등을 진행 했었는데 너무나도 잘 됐어요. 한 달에 한번 토요일에 무료진료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밤 11시가 되곤 했는데, 그 당시 통행금지가 있어서 부랴부랴 버스 타고, 버스 탈 수 없는 곳은 택시 타고 집에 왔던 기억들이 있어요. 또 행정적인 것들도 잘 정리해서 일지 만들고, 인테이크 카드도 만들고.. 모든 걸 다 새롭게 만들어야 되었지만, 그 자체가 당시에는 너무나도 재미있었어요.

지금 사회복지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30여년 간의 일들을 생각해보면 즐겁기도 했지만 힘들고 어려웠던 점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정직과 신뢰를 제 삶의 철칙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고, 그래서인지 수많은 후원들, 자원, 사람들을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정말 즐겁고 감사하게 원 없이 일하면서 지내온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 마디만 부탁 드려도 될까요?

이명위 관장 저의 고향, 친정 같은 선의재단의 창립 35주년, 그리고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개관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는 선의복지재단에서 1990년도에 개관하고, 서울신학대학교에 기증했던 부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30여년 이상을 선의은행과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후배님들 같은 선의재단 식구들을 만나 뵈게 되어 너무나도 즐겁고 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단에서 35년간 지켜온 선의(善意)의 마음을 세상 곳곳에 알리기 위해 즐겁게 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
35주년을
되돌아보다

창립 35주년 특집

| 선의의 사람들

최혁준 학습자원봉사자의 이야기

“멘티와 함께 성장한 시간”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의 멘토링 사업을 통해, 제가 누군가에게 선의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재학 중인 최혁준입니다.

저는 2년째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야간보호사업 가온누리교실에서 진행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학습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 멘티를 만났을 때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멘티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런 걱정도 잠시 멘티는 제 수업에 귀를 기울이며 집중해주었고, 멘티와 맞춰 가면서 멘토링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열심을 다해주는 멘티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멘토링에 흥미가 생겼고, 때로는 멘토링하는 날이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가기 전부터 언젠가 꼭 멘토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제 학창시절을 채워주신 많은 선생님들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12년 동안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선생님들께선 저에게 많은 가르침과 진심 어린 조언을 주셨습니다. 제가 받은 것들을 언젠가 멘토링을 통해 누군가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정말 운이 좋게도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을 소개받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멘토링을 하는 동안 부족하지만 멘티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공부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중학교 수학과 한국사를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멘토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멘티가 어려워하는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주고,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비하인드스토리

를 알려주면서 이해를 도와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부 외적으로도 고등학교 생활 혹은 대학 진학에 관한 내용 등을 알려주며 멘티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여러 분야의 내용들을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혹은 무엇이 가장 어려웠는지 짚어보면서 수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혹시 ‘수업 내용이 너무 어렵지는 않나’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다행히 멘티는 잘 따라와 주었고, 제가 멘티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을 대부분 흡수한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멘토링을 통해 저 역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선 수업 내용을 먼저 공부해보면서 중학교 당시에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이해시킬 때 어떤 방식을 택해야 더 쉽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멘티의 성실한 학습태도 등을 통해 잠시 나태해졌던 제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학생을 지도할 수 있어서 멘토로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멘토링을 진행하며 느낀 점들을 좀 더 많은 대학생들이 같이 느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일회적인 봉사활동보다 이렇게 꾸준한 멘토링을 통해 학생과 유대감을 느끼고 학생의 성장을 지켜보는 일이 훨씬 보람차다고 생각합니다. 제 수기를 통해 제가 느낀 보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선의의 사람들

해피시니어스쿨 장옥자 어머니의 이야기

“복지관에서 제2의 인생을 찾았어요.”

선의 복지관에 처음 방문한 것이 2005년도였으니, 그리고 보니 복지관을 이용한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15년 전에 제가 시장 거리에서 큰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 때 사고 목격자들 얘기로는 아주 높이 떠올랐었대요. 온 몸에 깁스를 했고 오른쪽 눈이 실명될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렇게 장에 4급 판정에 뇌 병변도 4급을 받았어요. 3년 동안 4군데의 병원을 옮겨 다니며 지내고 있었어요. 현재는 쇠골뼈랑, 어깨뼈 한 개가 없는 상태여서 오른쪽 팔이 자유롭게 움직여지지 않고 마음대로 잘 안 올라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다친 곳이 너무 많아, 목숨이 끊어지지 않은 것이 신기했을 정도였고, 식물인간이 될 줄 알았다는 소리도 들었었죠.

그렇게 3년 동안의 고되고 힘들었던 병원생활 끝에 2004년 11월에 퇴원을 했어요. 평생을 회사 다니며 일만 하고 지냈는데 쉬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웃집에 사는 친구가 복지관 노래교실을 알려주더라고요. 위에 복지관이 있는데 심심하면 복지관에 가서 노래를 불러보라고요.

2005년 3월에 친구 따라 복지관에 처음 나와 봤어요. 보니까 노래 교실 말고도 다른 수업들이 있어서 우리 춤체조랑 스포츠댄스랑 장구를 등록해서 시작해봤어요. 근데 수업을 하는데 오른팔이 다쳐있으니까 마음대로 안 움직여져서 안 올라가거나 자꾸 툭 떨어지고 그랬는데 계속하니깐 점차 팔도 운동이 되는지 올라가게 되고, 그게 또 신나더라고요.

또 복지관에 나오니까 친구들도 생기고 사람들도 다 웃으면서 반겨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렇게 좋은 곳도 있었구나.’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3년 있다 보니까 우울했었는데 퇴원하고 혼자 지내면 진짜 우울증에 걸릴 것 같더라고요. 자녀들도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복지관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다가 드럼 교실이 생겼어요. 드럼은 TV에서만 봤고 20대 젊은 사람들만 치는 악기라고 생각했는데 수업을 등록하고 드럼을 배우니까 내가 30대로 돌아간 것 같고 너무 신나더라고요. 여기 다니면서 마음이 계속해서 젊어지는 것 같아요. 친구가 ‘아니 언니는 왜 점점 젊어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나는 복지관에 와서 제 2의 인생을 찾은 것 같아요. 여기에 안 왔더라면 우울증



해피시니어스쿨 장옥자 어머니님

에 걸렸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 선의관악종합 사회복지관이 내 자랑이에요. 덕분에 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거든요.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점점 봉사활동에 대한 마음도 커져요. 지역사회 캠페인 ‘내가 먼저 인사해요’ 활동에 참여해보니까 나도 남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싶어서 참 좋더라고요. 이제는 뭔가를 더 하고 싶어요. 내가 병원에 오래 있어봐서 환자들 마음이 어떨지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내가 복지관에서 배워서 장구 같

은 것을 칠 수 있으니까 그런 장구 공연을 환자들을 위해서 보여주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나로 인해서 남들이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의미 있고 행복하더라고요.

우울할 것만 같았던 나의 60대에 복지관을 만났고, 이제 70대가 되었지만 전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나의 즐거움을 찾았고 이젠 이 즐거움을 남에게도 전달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 선의의 사람들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한미경 관장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법인 한국선의복지재단을 세우고 이끌어 오신 여러 이사님들의 정신을 이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맡겨진 자리에서 소명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은 처음부터 위대하거나 거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소명대로 일하면서 지금까지 이끌어온 35년의 역사위에 생명을 살리는 위대함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재단의 정신을 이어받은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한국선의복지재단 창립 35주년,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개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비전을 제시하시고, 그 이끄심에 따라 자신보다 뭔가 더 큰 것을 위한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한 분 한 분, 우리가 계승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정신입니다.

복지관 직원들은 한국선의복지재단의 소명을 명심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달려갈 것이며 다시 새로운 길들을 내기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공동의 선에 이르는 경험,

약해진 공동체를 살리는 경험,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는 경험을 만들 것입니다.

지금 복지관은 재개발이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도전 앞에서 지금까지 걸어온 기간 동안 수고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새로운 도전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들은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묵묵히 일하는 정직함과 근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천하려는 책임감입니다. 복지관 직원들은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기꺼이 즐겁게 수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내에 복지관이 있어야 할 이유이자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복지관을 신뢰하고 힘을 주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이 그동안 얼마나 가치 있는 일들을 해 왔는지,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선의가 얼마였는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대가 요구하는 것과 지역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도하는 복지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단과 복지관이 지금까지 달려온 길과 앞으로 달려갈 길에 앞장선 자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의 소명을 명심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달려갈 것이며
다시 새로운 길들을 내기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
35주년을
되돌아보다

창립 35주년 특집

| 선의의 사람들

한국선의복지재단 지성은 해외사업팀장 내가 함께 한 선의

내가 함께 한 선의는 기도의 힘으로 운영되는 곳

2013년 5월의 어느 화요일, 한국선의복지재단 노원 사무실에서 진행된 직원 면접에 참여하였습니다. 면접 후 사무실 옆 식당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매주 화요일은 한국선의복지재단 화요기도모임이 있는 날이라 기도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함께 식사를 하였고 예 배실에서는 기도모임을 준비하는 찬양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구인포털 사이트를 통해 직원모집 공고를 본 뒤 홈페이지로만 선의를 만나다가 화요기도모임을 준비하는 선의의 모습을 보니 기도로 준비하는 사역들이 참 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선의와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재단에서 연락을 받았고 1년 정도 베트남에 봉사단으로 나가서 활동 한 뒤 서울 사무국에 복귀하여 근무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재단의 사업을 이해하려면 베트남 현장 근무를 하는 것이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께서도 적극 지지해



주셨기에, 1년 간 베트남에서 봉사단으로 활동 한 뒤 사무국으로 복귀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선의가족으로 일하면서 내가 함께 한 선의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함께 한 선의는 기도의 힘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 사무국으로 전도사님, 이사님들이 모여 재단의 기도제목을 나누며 함께 마음모아 기도를 합니다. 명절이나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주 지속적으로 재단의 사업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모여서 재단의 사업들이 진행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장병 어린이들이 한국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 들어왔을 때는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기도제목을 적으셔서 집에 가서도 기억하시고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운영이사회 이사님들도 매 월 모임 중 재단 사업에 대한 기도를 늘 잊지 않으십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운영이사회 이사님들 중 35년 전 함께 기도하며 창립하신

창립멤버 이사님들 세 분이 여전히 함께 기도하시며 선의의 크고 작은 일들에 참여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35년 전 선의를 시작하게 한 기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함께 한 선의는 과정이 중심이 되는 곳

다른 NGO나 사회복지법인들은 사업대상 인원 수 대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한 명의 대상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사업 대상인원을 늘리기도 하고 후원금 중 행정비용을 우선적으로 공제하는 곳도 많습니다. 과정보다는 목표달성과 성과에만 집중하는 기관도 많습니다. 선의에서 하는 대표적인 사업인 심장병 어린이 수술 사업은 한 명의 아동을 살리기 위해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3달 이상을 한국에서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체류하며 여러 번의 수술을 진행합니다. 수술에 드는 비용이 얼마더라도 그 아동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재단의 식구들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후원하여 단 하나의 생

명을 살리기 위해 집중합니다. 재단의 모든 직원들과 이사님들이 아동의 이름을 기억하고 담당자들은 병원에서 보호자와 대부분의 시간들을 함께 합니다. 사업의 과정 한 순간 한 순간, 아동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 가족의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내가 함께 한 선의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곳

선의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은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과 연결된 가족을 살리고 그 가족들이 모여 있는 지역사회를 살리는 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심장병 아동들을 수술해주고, 수술 후에도 지속적으로 약을 먹여야 하는 아동들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결연 후원자를 맺어줍니다. 10년 전, 15년 전 수술 받았던 아동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그 가정도 더욱 성장하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모여 선의의 역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선의의 오늘을 함께 써나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
35주년을
되돌아보다

창립 35주년 특집

|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심장과 의사 정세용

84차 필리핀 심장병어린이 Ashley Miles와 선의재단을 추억하며

Ashley Miles는 팔로씨 4징후로 진단을 받고 수술적 치료를 위해 필리핀에서 온 귀여운 3세 여아였습니다. 보통 3-6개월 정도에 교정수술을 받아야 하는 병인데, 치료 시기가 늦어져서 폐동맥의 발달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수술적으로 잘 치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Miles의 상태는 기존의 정보와는 사뭇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의학적인 설명을 최소한으로 줄여보면 팔로씨 4징후 중에서도 극단의 경우로, 폐동맥 판막의 협착이 매우 심하고 양측의 폐동맥의 시작 부위가 심하게 좁아져 있어서 청색증이 매우 심

한 상태였습니다. 아이는 오랫동안 청색증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입술 및 전신이 자주 파래졌고, 산소 포화도는 6-70%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심장 상태의 후유증으로 추정되는 심한 뇌경색의 흔적이 양측 뇌에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이는 도착 당시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어 고열, 기침, 가래 및 이로 인한 저산소증의 악화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였고, 환자의 전신 상태 및 수술 후 감염의 우려로 인해 수술적 치료를 연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아이를 무사히 살려서 필리핀으로 돌려 보낼 수 있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온 외국인 환자가 수술적 치료는 받지 못한 채,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상황 그리고, 여러 제반 상황 및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치료를 하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기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후원해 주시는 선의재단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테니 Miles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Miles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였지만, 실제로 주된 치료를 해 주신 분들은 저의 스승이신 최재영 교수님, 박한기 교수님이셨습니다. 두 분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저희 기관의 정신을 저에게 되새겨 주시면서, 이번의 치료가 마지막이 될 지 모르는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 치



마일즈를 안고있는 정세용 선생님과 보호자



정세웅 선생님과 마일즈, 운영이사회이사진들과 함께



마일즈

료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러나 가장 어려운 수술 방법을 택해서 긴 시간 동안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도관을 연결하고, 도관의 위치도 아이에게 적합하도록 계속 고심하시면서 최선의 수술을 해주신 박한기 교수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또 매우 좁은 양측 폐동맥 분지에 스텐트 삽입술을 해주시면서, 귀한 후원을 받아 힘든 수술을 받은 아이가 앞으로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와 후원해 주신 분들의 보람이자 감사할 일이라고 해주신 최재영 교수님께도 항상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먼 이국 땅에서 힘든 치료를 받는 Miles와 어머니를 위해 수고한 따스한 모든 손길들에도 감사드립니다.

Miles는 한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미소를 매일 저희에게 선사할 정도로 급속도로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혹시 Miles의 치료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후원해주신 단체에 큰 부담을 드린 것이 아닌가라는 뒤늦은 걱정을 하였지만, 선의재단 관계자 분들을 만나고 나서야 그 생각이 역시나 기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의재단 관계자 분들께서 Miles의 퇴원을 축하하기

위해 병원에 와 주셨고, 자신의 일보다 더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선의재단 이사님들의 모습을 통해 ‘주는 나의 기쁨이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더 크다’라는 세브란스 선생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의재단을 만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웃을 향한 끝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가치를 삶으로 구현하고 계신 모습에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 저도 선의재단의 모토와 일맥 상통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는 연세의료원의 모토를 삶으로 옮기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재단에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합니다. 인연이 계속되어 후원해 주시는 환자가 또 치료를 받으러 오게 되면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Miles와 어머니도 선의재단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Miles의 치료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글을 마무리 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
35주년을
되돌아보다

창립 35주년 특집

|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

한국선의복지재단 박유정간사

84차 필리핀 심장병 어린이들과 함께 한 시간

2017년 8월 17일 오전 10시.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84차 필리핀 심장병 어린이 및 보호자들과 첫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인사도 잠시, 말은 온전히 통하진 않았지만 한국으로 이동하는 내내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위 해주며 한국행에 올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여 수술을 위한 검사로 니콜(2살/여)과 카일(4살/남)은 병실에서 치아치료 및 검사를 병행하였습니다.



마닐라 공항에서 만난 84차 필리핀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왼쪽부터 박유정간사, 니콜(2살/여), 카일(4살/남), 마일즈(3살/여), 이명숙부장)



검사받는 니콜



검사를 기다리는 카일



중환자실의 마일즈



퇴원 전 병원에서 간호사들과 작별 인사하는 카일과 보호자

그 중 병의 상태가 제일 심했던 마일즈(3살/여)는 바로 중환자실로 이동 조치되어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니콜은 동맥관 개존증(PDA)으로 간단한 시술 후 회복하여 9월 1일 제일 먼저 귀국하게 되었고 카일은 심실 중격 결손증(VSD)으로 1번의 수술 후 회복하여 9월 13일 필리핀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일즈는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필리핀 현지병원에서 진단 시 팔로씨 4징후(TOF)판정을 받았던 아동은,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정확한 진단명이 팔로씨 4징후(TOF)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양대혈관우심실기시증(DORV)으로 판정이 난 것이었습니다.

양대혈관우심실기시증은 심실 대혈관 연결이상의 한 유형으로 심장의 양대혈관, 즉 대동맥과 폐동맥이 모두 우심실과 연결되어 있는 선천성 심장 기형 질환입니다. 선천성 심장 기형의 약 1%를 차지하며 심장기형 중에서도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됩니다.

최악의 경우 수술 도중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황에서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마일즈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마일즈 엄마

도 수술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말에 아동의 보호자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마일즈는 8월 22일 1번의 시술 후 산소포화도가 계속 떨어져 수술 날짜를 미루다가 9월 8일 어렵게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마일즈의 보호자는 감격에 겨워 연신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일즈 아동은 중환자실에서 나온 후에 슈퍼박테리아로 알려진 다제내성균이 발견되어 타인에게로의 전염을 막기 위해 1인실 격리 병동으로 격리조치 되었으며 중환자실에서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며 생긴 트라우마

때문인지 말하지도, 웃지도, 음식을 먹지도 않던 마일즈는 그저 영양이 공급되는 줄을 코에 끼운 채 초점이 없는 공허한 눈빛으로 가만히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폐동맥 협착증으로 3차 시술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마일즈가 조금씩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눈에 초점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음식을 조금씩 먹기 시작하여 영양소 공급의 이유로 코에 연결해놓았던 콧줄을 제거하였으며 나중에는 웃고 의사표현을 하며 밝은 모습으로 돌아와 주었습니다. 아동의 보호자는 물론 병원과 재단 모든 사람들이 아동의 변화를 기적이라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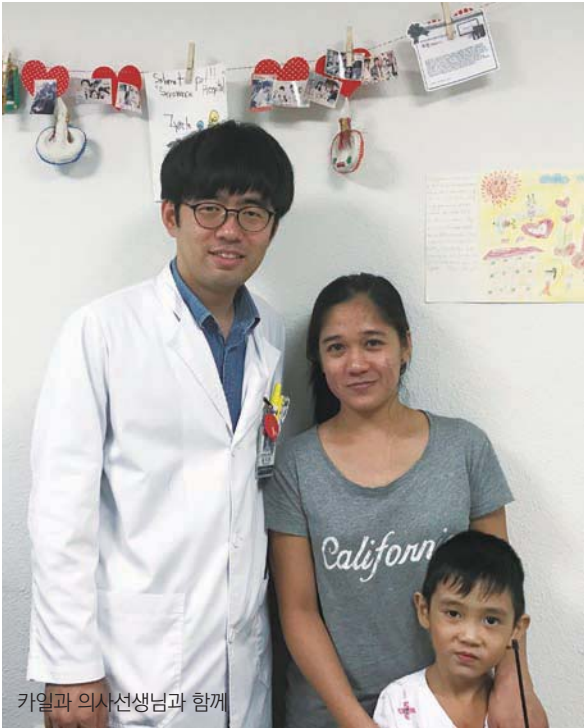
마일즈는 음식도 잘 먹고 잘 자며 회복세가 눈에 띄게



수술 후 깨어난 마일즈와 마일즈 엄마



시술 후 중환자실에서 의식없이 잠들어있는 마일즈의 모습



카일과 의사선생님과 함께



초점이 없는 눈빛으로 누워있는 마일즈



3차 시술에 들어가는 마일즈 (2017. 10. 18)

좋아졌습니다. 환아와 보호자의 귀국날짜를 전혀 가늠하지 못하고 있던 시점에서 환아의 건강 회복은 퇴원 및 귀국 날짜를 앞당길 수 있게 했으며 2017년 10월 27일 환아와 보호자는 건강한 심장으로 제 2의 삶을 기대하며 약 72일간의 치료기간 끝에 행복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84차 필리핀 심장병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써주신 후원자님들, 밤낮으로 기도해 주신 이사님들, 그리고 위험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집도를 결정해 주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의과대학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퇴원하는 날 마일즈를 방문해주신 한국선의복지재단 이사님들과 함께

한국선의복지재단
35주년을
되돌아보다

창립 35주년 특집

|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

김종태 선교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저는 필리핀에서 만 14년 째 현지 교회 개척과, 교인 및 현지인들을 도우며 사역하고 있는 김종태 선교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필리핀 땅에 선교사로 파송을 갈 당시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동서남북으로 흘러가는데,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겔 47:9) 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주님 제가 생수의 강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지역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개개인이 병들고 아픔이 있는 자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 되고, 소생되게 하시며, 그들의 삶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며 선교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09년 부터, 개인적으로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계획하지 않은 한국선의복지재단과 함께 선천성 심장병 아이들을 결연하여 수술을 받도록 돕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9명의 아이들이 제가 있는 사역지인 필리핀에서 결연이 되어 한국선의복지재단을 통해 심장수술에 권위가 있는 여러 한국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필리핀 생활을 하고 있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가끔씩 각 지역이나 교회에서 심장병 수술을 한 아이들을 볼 때 늘 힘 없고 활동이 없던 아이들이, 수술 후 활발하게 뛰놀며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오고 한국선의복지재단의 헌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아이들

이 자라면서 외모도 멋져지고 생활에 자신감을 갖는 모습에 너무나 보람되고 아이들이 이다음 크면 자기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는 고백에 너무나 행복할 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은 필리핀에 아직도 심장병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무료 수술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마음이 아픈 사실은 같은 교회나 지역에서 누구는 선택을 받고 누구는 선택을 받지 못해 아이가 수술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너무나 그 엄마와 아이에게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 힘이 드는 것이 심장병 수술 결연 일을 하면서 저에게 다가온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선의복지재단이 한국의 어느 단체보다 효과적이고 놀라운 사역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한국선의복지재단과 파트너가 되겠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나 좋은 친구들이 몇은 있듯이 한국선의복지재단은 제 중년의 인생과 선교 사역 가운데 어느덧 좋은 친구와 동반자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선천성 심장병 아이들 수술비를 준비하고 돕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국선의복지재단을 통해 돈이 없어 심장 질환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필리핀 아이들을 살리고 새로운 인생과 미래를 선물하는 가장 복된 일들을 함께 감당케 하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국선의복지재단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84차 필리핀 어린이와 함께 한 김중태 선교사

그리고 올해 절대 잊을 수 없는 아이의 이름 ‘마일즈’가 있습니다. 거의 3개월 만에 심장병 수술을 마치고 돌아온 마일즈는 아마도 한국선의복지재단과 연대세브란스 의료진 분들께 잊지 못할 유명한 이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선천성 심장병 아이들 중 최악의 상태, 상상도 안 되는 어마 어마한 병원비, 화상으로 인한 이식 수술과 슈퍼 박테리아까지.. 이 마일즈와 같은 케이스가 없었고 어려운 수술이 없었을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음 직전에 있던 아이를 18시간 동안이나 최선을 다해 수술을 집도해 주시고 간호해 주신 연대세브란스 의료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긴 시간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일즈 엄마와 아이를 따뜻하게 챙겨 주시고 돌봐주신 한국선의복지재단 문영기 이사장님과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병원비의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지만! 이런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한국선의복지재단의 수고와

희생에 감사 하다는 말뿐이 할 수 없어 너무나 미안하기만 합니다. 3살 된 마일즈가 오랜 시간동안 혼자서 중환자실에 있었고 수술로 인해 말과 미소를 잊었었는데 필리핀으로 돌아온 후 말과 웃음이 회복 되었고 밥도 잘 먹고 생활도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어서 아이를 안고 기도하는데 너무나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선의복지재단에 바람이 있다면 지속적인 선천성 심장병 수술과 함께 수술 후에도 후원을 모든 아이들에게 연결하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잊지 않도록 최소한의 약과 필요만이라도 공급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한국선의복지재단의 창립 35주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욱 왕성하게 생명 살리는 일들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들만 이루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
35주년을
되돌아보다

창립 35주년 특집



2009년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께흥과 보호자

|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

한국선의복지재단 함미선간사 베트남 다낭시 씨니 유치원

9년 전 2009년 4월, 베트남 다낭에서 한 살 배기 께흥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태어날 때 부터 양쪽 심장에 구멍이 뚫려있던 어린이가 수술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베트남의 작은 유치원의 교사로 일하던 께흥의 엄마는, 아이의 수술을 위해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병실을 유치원 교실처럼 예쁘게 꾸며주기도 하고, 아이들의 놀이감으로 사다준 색종이를 곱게 접어 아이들에게 꽃 목걸이를 만들어 주기도 하며 자칫 어두워질 병실의 환경에 환한 빛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약 2주 동안의 수술과 회복기를 무사히 마친 께흥은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께흥의 엄마로부터 좋은 소식을 전달 받았습니다. 바로 유치원 선생님이로 일하던 께흥의



2009년 베트남 심장병 어린이 입국(인천국제공항)



2012년 께흥의 집 방문 (베트남 께흥가족 집)

엄마가, 유치원을 개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유치원의 이름은 “SUNNY 유치원 !”

아들인 껍흥의 고장난 심장을 고쳐주었던 선의복지재단의 영어이름인 Sunny Korea 그리고, Sunny의 의미인 밝은 햇살처럼,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Sunny 유치원을 개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9년 전, 베트남 다낭시 작고 후미진 골목 집 안에서 아들의 심장병 수술비 마련에 전전긍긍하던 한 가정은,

한국에서 날라 온 작은 선의의 손길로 9년 후, 선의 유치원을 만들게 되었고, 유치원에서는 또 다른 선의가 싹트고 있습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은 올해 창립 3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35주년 행사에 껍흥 가족을 초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작지만 꾸준히 생명을 살리며 영혼을 살리는 일들의 작은 결실입니다. 올해 창립 35주년 행사에 오시어 껍흥 가족에게 축복과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해주세요.



한국선의복지재단
35주년을
되돌아보다

창립 35주년 특집

|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

한국선의복지재단 박유정간사 다시만난 아이들

한국선의복지재단은 개발도상국의 선천성 심장병 아
동들을 수술 및 회복, 귀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돌아
가고 나서의 사후관리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리
핀 현지에 직접 가서 전 차수 필리핀 심장병 아동들이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돌아간 후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

을 보니 기분이 묘함과 동시에 벅차오르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는 서로 차수는
달라도 모두 심장병 수술을 한 아동들과 가정이었기에
보이지 않는 그들만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동들 한명 한명에게 인사를 건네며 수술 후 그 동안



왼쪽 밑에서부터 크리스, 조셉, 피오나, 알렉스, 찰스

어떻게 지내왔는지 앞으로의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조셉(22차/21살)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으며 이미 대학생이 되어 학업에 정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피요나(44차/13살)는 한국에서 심장병 수술을 받고 돌아간 이후 미래에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안고 있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똑 부러지는 피요나가 의사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해주었습니다. 크리스(52차/14살)와 알렉스(16차/13살)는 한참 사춘기여서 그런지 부끄러움이 많은 소년들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꿈이 무엇이나 물어도 그저 수줍게 웃을 뿐입니다. 찰스(82차/1살)는 기운이 더 세져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 함께 웃고 대화를 나누며 감사함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망가니프(78차/2살) 아동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망가니프아동이 한국선의재단에서 손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 일어서서 저희를 반겨주었습니다. 씩씩하게 서있는 망가니프의 모습을 보며 제가 알던 망가니프가 맞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78차 망가니프 아동은 수술 당시 상태가 제일 심각했었습니다.

한국에 수술하러 한국에 들어올 당시에는 10개월에 몸무게가 3.5kg으로 굉장히 연약하고 작디작은 아이였는데 같은 아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건강해지고 통통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장난감과 과자를 주니 좋아하며 잘 먹고 잘 웃는 아동의 모습을 보며 꺼져가는 생명이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이 감동이 되어 어느덧 눈가가 축축해졌습니다.



수술 전의 파리한 안색의 망가니프



청색증이 만연한 망가니프의 손



수술 후 1년뒤 필리핀에서 다시만난 망가니프



한국선의복지재단
35주년을
되돌아보다

창립 35주년 특집

볼리비아 윤도근 선교사님과 1:1결연 후원 학생들과 함께

|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

볼리비아 해발 4,150미터 고산지대에서 온 편지

볼리비아 10명의 해외결연아동들과 함께 윤도근, 박향림 선교사

할렐루야!

먼저 창립 35주년을 맞이한 한국선의복지재단의 이사장 문영기장로님, 모든 이사님들, 모든 회원님들과 간사님들 그리고 한국선의복지재단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충만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익와의 인연은 2000년 6월 30일, 제가 고국을 방문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볼리비아 해발 4,510미터 고산 선교지에서 29년차 하면서도, 고국에 돌아가면 이방인처럼 숙소를 다른 곳으로 전전하는 어려움이 주어질 수 밖에 없었지만 10여년을 넘게 같은 장소(한국선의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한국 크리스찬 게스트 하우스)에서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



볼리비아 윤도근 선교사님과 1:1결연 후원 학생들과 함께

들의 만남과 섬을 통하여 많은 재충전의 기회를 나눌 수 있었으며 감사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10년 6월 30일부터 잉카 선교회의 10명의 어린이들에게 매월 10만씩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들이 주어지기 시작하면서 2012년 3월 30일부터 20만원씩 인상을 해주셨으며 2016년 1월 22일부터 30만원씩 후원을 해주심으로 저희 어린이들의 생활이 많이 향상 되었으며 학교에서도 자랑스런 어린이들로 성장하고 있으며 교회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고 있음을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드리며 한국선의복지재단의 문영기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이사님들과 회원님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을 통하여 또한 모든 간사님들의 수고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열매들이며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고산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한국선의복지재단의 사업 중에서 해외 결연 아동 사업의 일환으로 볼리비아 어린이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보내 주심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역사하심이 한국선의복지재단 창립 35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
35주년을
되돌아보다

창립 35주년 특집

해외사업

| 선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끄신 뉴욕 선의 선교회 15주년 할렐루야 ~!

뉴욕선의선교회 회장 최문섭 장로



갖가지 많은 사연과 추억들을 가슴에 안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2003년 창립 1주년 예배를 드린 날이 엇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빠르기는 빠른 것 같습니다.

2017년 10월 12일에는 뉴욕선의선교회 창립 15주년을 맞아 뉴욕의 한인 연회장인 대동연회장에서 15주년 기념행사가 성대히 열렸습니다.

이번 창립 15주년 기념행사에서 이용걸 목사님께서

이런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에 사는 귀한 여인의 집을 지나가곤 하였는데, 주의 종인 엘리사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방을 마련해주었고, 침터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일이니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지만 엘리사는 기쁜 마음으로



뉴욕선의재단 창립 15주년 행사 (대동 연회장)





뉴욕선의재단 이사진과 문영기 한국선의복지재단 이사장(창립 15주년 행사장에서)

축복하였고 많은 기적도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뉴욕의 선의 선교회가 2007년에 문을 열어 현재까지 연인원 10,000여명 이상의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을 쉬어가게 하였습니다. 저도 지방의 목사라 뉴욕의 신학교에 강의하러 올 때면 선교사의 집에서 쉬기도 하였고, 또 만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며 그 덕분에 단기 선교도 다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또한 한인타운의 중심지에 제2의 선교사의 집을 마련하고 사역을 넓혀가기 위해 뉴욕 선의 선교관이라 칭하였으니 앞으로의 사역에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수넴의 여인에게 축복 하셨 듯, 하나님께서 수종드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동일한 축복이 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저희재단의 본부를 책임지고 계시는 이사장 문영기 장로님의 축사를 인용하려 합니다.

“뉴욕 선의의 모든 분들은 아름다운 발을 가지신 분들이십니다. 선교사의집을 통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수

고하시는 그 수고와 헌신과 사랑은 뉴욕선의가 뉴욕지역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유브라테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사랑을 전달 하는 귀한 사역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선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뉴욕 뉴저지 지역에 흠어져 있는 모든 선교회를 초청하였습니다. 약 30여개의 선교회 중에서 17개의 단체가 참가하여 각기 다른 사역을 소개하고 교류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사명이 아닐까 합니다.

15주년의 뉴욕 선의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주어진 작은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
35주년을
되돌아보다

창립 35주년 특집

해외사업

| 선의 이야기

선의와의 만남은 우크라이나에 복이 되었습니다

선의 우크라이나법인 김태한 대표

선의와의 만남은 우크라이나에 복이 되었습니다!

선의(善意) 가족을 알게 된 것은 2000년 초반 크리스천 게스트하우스에서였습니다. 당시 한국선의복지재단은 서울 중심에 있는 큰집을 선교사의 거처로 제공했었습니다. 세심한 배려로 꾸며진 장소였고 한국을 방문하는 선교사 가족들은 안식처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경쟁의 시대에 기업은 무한이익을 추구하지만 선의는 남달랐습니다.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사람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복지관을 통해 노인과 방



출판사업 - 묵상집 21호

치된 어린이를 돌보고 급식을 공급했고, 저개발국가에 학교와 보호시설을 세웠고 병원을 설립해 병든 자를 보살폈습니다. 어려운 나라의 심장병아동을 초청해서 무료로 수술을 베푸는 일을 실천했습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우크라이나에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신학교 지원을 요청했는데 기꺼이 허락해 주셨고, 우크라이나에 선한 사업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과 함께 복음주의 신학교를 든든히





김태한 대표(중간)와 우크라이나지부 목사집을 들고 함께



선의 우크라이나지부 사업보고

세웠습니다. 건축 지원금, 이사헌금은 초기 신학교 발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현재목상집과 신앙(교양)도서를 인쇄, 배포하는 문서사역을 하고 있으며(136,000권 발행), 갈등해결 세미나를 통해 전쟁으로 분열된 사회와 교회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약 600명 참석). 또한 목회자훈련과정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주일학교교사 교육을 통해 다음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고 있으며(약 200여명, 100교회 목회자 참석), 아동심장병재단 및 병원을 지원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선의 우크라이나 현지법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과 일하며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경쟁의 시대에 목표는 이기는 것이고 방법은 선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행 20:35)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것을 나누어주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진자, 영적인 실재를 아는 자가 자기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눔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로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지며 복된 삶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과 사업협상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중요한 협상인데 상대방이 관심을 보이지 않아 결렬되는 분위기였지만, 문영기 이사장님은 화제를 돌려 한국선의복지재단이 하는 일, 믿음의 실천을 언급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윤추구 만이 목표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일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너머 상대방 대표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도 자기 회사가 실천하는 선한 일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협상이 재개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칠 때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하며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긍정적인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현재 선의는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기도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주님이 이루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 운영이사회 하숙란 회장님께서서는 성경말씀구절을 인용하여 선의가 하고있는 일을 요약했습니다. “흠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잠 11:24-25).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부 기업의 이기적이고 착취적인 운영방식이 바람직한 성공의 모델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업체는 복된 기업이 아닙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영원한 상급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묻곤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 않나요.”

확실한 대답이 있습니다. 저는 선의, 선한 가족을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고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복이 지구 반대편 동토의 땅이었던 우크라이나까지 흘러 차오르고 있습니다. 복된 가족과 더불어 일하는 기쁨, 이 즐거움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한국선의복지재단
35주년을
되돌아보다

창립 35주년 특집

해외사업

| 선의 이야기

생명을 살리는 선율 베트남 호치민 필하모닉 인터내셔널 유스 오케스트라

한국선의복지재단 베트남 호치민 지부에서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모금활동으로 오케스트라 공연을 매년 진행합니다.

2012년 7월 15일 고엽제 피해로 손가락을 사용하기 힘들었던 어린 닷을 위해 시작되었던 베트남 호치민 필하모닉 유스 오케스트라 공연은, 올해 다섯 번째 정기 연주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필하모닉 인터내셔널 유스 오케스트라 콘서트(2017년 6월 25일)

올해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세살배기 어린 아이 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6월 25일에는 Nhac Vien Music Hall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필하모닉 유스 오케스트라 공연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400여분의 관객들과 함께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고, 수많은 관객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33,000,000동(한화 약 163만원)이라는 후원금을 모금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원금은 7월28일 곧 수술을 앞두고 있는 안의 병

실에 직접 찾아가 단의 가족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그 가족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금 단은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필하모닉 유스 오케스트라 아이들의 선율은 올해에도 한 어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자신의 재능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을 전달하는 베트남 호치민 필하모닉 유스 오케스트라를 응원해주세요.

PHILHARMONIC INTERNATIONAL Youth Orchestra

Fundraising Concert for a Cardiac Patient

HCMC Nhac Vien Music Hall
25 JUN. 2017, SUN. 5PM
112 NGUYEN DU, BEN THANH, Q1, TP.HCM VIET NAM

MOZART - MARRIGE OF FIGARO - OVERTURE
피가로의 결혼

LISZT RIGOLETTO PARAPHRASE
리스트 리골레토 패러프레이즈

OVERTURE PHANTOM OF OPERA
오페라의 유령

HOSTED BY PHILHARMONIC YOUTH ORCHESTRA QUESTION 093 794 8922
ADDRESS 112 NGUYEN DU, Q1 HCMC NHAC VIEN MUSIC HALL
SUPPORTED BY KREVES 한국선의복지재단 HAN KOREA WELFARE FOUNDATION

베트남 호치민 필하모닉 유스 오케스트라 포스터



한국선의복지재단
35주년을
되돌아보다

창립 35주년 특집

해외사업

| 선의 이야기

중국 내몽고 민족대학교

중국 내몽고 자치구 톨라오시 내몽고민족대학교 한국어 반

한국선의복지재단에서는 2009년부터 올해 2017년 까지 9년 동안 내몽고 민족대학교 한국어 강사 파견과 장학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에서 중국 내몽고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내몽고(內蒙古)'라는 지역은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그리 익숙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몽고'라면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거기에 '내'자가 붙은 건 뭐가 다른 것인가? 그럼 내몽고도 몽고인가?"라는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재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내몽고라는 지역은 몽고가 아닌, 중국의 한 부분입니다. 몽고는 '나라'의 의미도 있지만, 그 몽고에 살고 있는 민족의 명칭이기도 하며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올해 내몽고 민족대학교에서는 한국어 교양 초급/중

급반, 배양 초급/중급반 학생들에게 한국어 수업 진행 뿐 아니라, 지난 6월 24일 제 13회 내몽고민족대학교 한국어 반 장학금 수여식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내몽고민족대학교 한국어 반에서는 한중 문화교류와, 서로간의 친교를 위해 요리활동을 진행했는데, 특히 요리활동의 경우에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각자가 수업시간 내에 팀 이름도 만들기도 하고 K-Pop에 맞추어 춤과 노래도 선보이며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질 정도로 정성을 들여 준비해 오는 학생들의 수업태도와 나날히 발전해가는 아이들의 한국어 실력을 확인하며 선생님들께서는 다시 사명감과 열정을 갖게 됩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의 내몽고민족대학교 한국어반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잔디밭에서 학생들과 함께 한 수업



교실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학생들과 함께 한 음식문화체험 (음식만들기)



학생들과 함께 한 음식문화체험 (음식만들기)



학생들과 함께 한 음식문화체험 (음식만들기)



내몽고민족대학교 한국어반 학생 장학금 수여식

한국선의복지재단
35주년을
되돌아보다

창립 35주년 특집

해외사업

| 선의 이야기

감언 비엠티! 제2의 고향 (Cảm ơn Việt Nam! Quê hương thứ 2!)

한국선의복지재단 구자익 단원 NGO 봉사단 활동수기



벌써 가족과 함께 베트남에 온지 8개월이 지났네요. 시간의 빠름이 느껴집니다. 처음 도착해서 지부장님 내외로부터 도움으로 수월하게 정착했지만 그래도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건 쉽지않은 일이었습니다. 속기도 하고 쉬운 길을 어렵게 돌아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걸 잘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3,200km 떨어진 적도 인근의 찌는 듯 더운 나라에서 베트남인들의 삶을 보고 느낀 지난 8개월 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도착 후 지부의 전산관련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초년에 광고 관련 일을 하다가 컴퓨터 학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오케스트라 공연 관련해서 밤 늦게 까지 포스터, 현수막, 브로슈어 등의 작업과 공연 준비를 해보니 옛날 추억에 새롭기도 하였고, 공연 당일 지휘자의 지휘봉이 올라가고 공연이 시작될 때와 공연 후 기금을 전달할 때에는 감동이 가득한 느낌이 충만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센터에서 한국어교육 활동을 하면서 그 친구들과 친밀감도 더해지면서 안타까움도 더해

고, 그 친구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센터에서 진행되는 바자회 준비를 위해, 저희 지부에서도 장소 지원, 이동, 운영, 구매 등 다양한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를 가졌지만 정상인보다 더욱 열심히 배움을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도움을 받는 건 도리어 저 자신인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성찰의 기회를 주는 이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다낭 출장 이야기입니다. 매연 속의 호치민에서 살다가 다낭에 도착하니, 마치 한국에서 공단지역에 살다가 제주도에 간 느낌일까요? 어찌나 쾌적하던지, 기분이 너무 좋더군요. 호치민은 지평선 끝까지 봐도 산이 안보입니다. 다낭 출장에서는 선의(씨니)유치원을 방문하고 원장님 식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재단에서 후원을 받아 수술을 한 아들 께희의 성장한 모습을 보았는데, 아주 건강하고 밝았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저희 재단에 감사함을 거듭 표시하며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오래전 베푼 선의가 긴 시간이 흘러 또 하나의 선의로 다가움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외에도 구찌고아원에서의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퐁팡퐁팡한 아이들의 눈망울과 야학에서 힘든 환경에서



장애인센터 회식



푸미흥센터 한국어교육



다낭 SUNNY유치원 방문



장애인센터 한국어교육

도 아이들과 청년들이 배움을 실천하고 전달하는 모습 등 우리는 베트남 지역사회에 밀알을 심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한국에서 삶의 고단함을 핑계로 수십 년 만에 굴린 육체를 지난 8개월 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서 저와 와이프는 다행히 감량도 하고, 가족이 아직 한 번도 병원 신세를 지지 않아 어찌나 고맙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사실 저에게는 막내 학교 생활 적응과 함께 단원 생활에서의 적응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걱정이었는데, 두 가지 다 잘 적응되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에겐 가족과 함께 밀착해서 보낼 수 있었던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몸과 정신이 건강해진 느낌입니다. 저에게 이런 변화와 경험과 성찰을 선물해 준 베트남은 저에겐 너무나 고마운 곳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이 더욱 익숙해질 즈음 저에겐 떠나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겠죠.

아쉬움은 더욱 커지겠지만 변함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후원을 해주는 우리 재단과 저를 대신해서 올 단원과 모든 일에 솔선수범이신 지부장님 내외 분이 계시기에 걱정 없이 단원 생활을 마치고, 다음을 기약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인생에서 이런 멋진 시간과 여유를 선물해 준 한국 선의복지재단 문영기 이사장님과 재단 내 열성을 다해 선의를 위해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베트남은 저에게 '제2의 고향'입니다.

감언 비엠티(Cảm ơn Việt Nam! Quê hương thứ 2!)

한국선의복지재단
35주년을
되돌아보다

창립 35주년 특집

국내사업

| 선의 이야기

한국선의복지재단 35주년,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30주년 주민 전시회 ‘함께하니 좋구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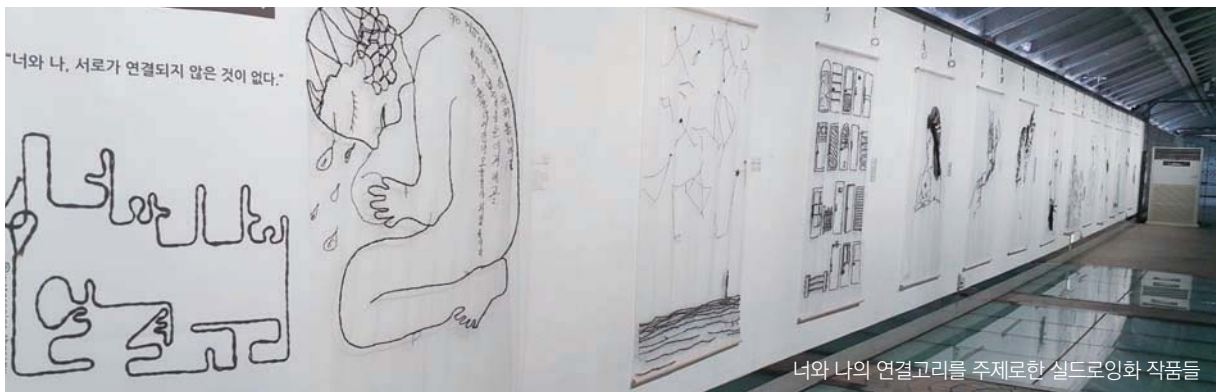
요즘에는 가까이 살아도 이웃끼리 얼굴을 마주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공간을 활용해 이웃끼리 동아리를 만들고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활동이 활발합니다. 가정주부부터 80세가 넘는 어르신까지 구성도 다양합니다. 특이한 점은 같은 동네 사는 주민이 다른 이웃들에게 캘리그라피, 수채화, 유화 및 팝아트를 재능기부 형태로 가르쳐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민들 덕분에 성현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캘리그라피와 수채화, 드로잉을 3년째 무료로 배울 수 있었고, 전시회까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수채화테라피 동아리에서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주민 윤인애님(성현동, 36세)은 “아이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만 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존감도 떨어지고 마음이 힘든 상황이었어요.”라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러다 자신과 같이 ‘공백’을 느끼고 있을 주부들을 대상으로 ‘수채화테라피’ 강좌를 개설했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엄마들이 서로의 상황을 공감하고 또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글 공부하는 어르신들에게 유화, 팝아트, 수채화를 무료로 지도해온 배선귀님(성현동, 39세)도 있습니다. 배선귀님은 아기 엄마들의 책모임을 하러 복지관에 왔습니다. 그러나 복지관에 와보니 자신이 이웃들을 위해 돕고 싶은 일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선의의 마음으로 시작한 봉사활동이 햇수로 3년이 되었습니다. 한글을 공부하는 어르신들에게 명암 단계부터 시작하여 데생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르신들이 차츰 사물의 형태를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체도 표현하고, 아크릴화, 팝아트, 수채화, 펜드로잉화도 그려내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번 작품 전시회에 87세 황 어르신께서도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웃관계를 테마로 준비한 이번 전시회에는 실 드로잉 13점과 캘리그라피 31점, 어르신들의 수채화와 팝아트 작품 34점 등 총 78점이 전시되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상 속 평범한 시민들의 작품들은 메트로미술관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주제로한 실드로잉화 작품들



왼쪽이 미술을 지도해온 배선큐님, 오른쪽이 87세 황 어르신



작품들을 관람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황어르신이 난생 처음 완성한 수채화 '골목길'



오픈식에 참여한 주민들이 다함께 기념촬영

한국선의복지재단
35주년을
되돌아보다

창립 35주년 특집

국내사업

| 선의 이야기

파란 손을 위한 기적 - 2017 용산구 자원봉사 사회복지박람회

한국선의복지재단에서는 2017년 10월 25일, 2017 용산구 자원봉사·사회복지 박람회 '나눔 愛 물들다'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의 주력사업인 선천성 심장병아동의 수술을 돕는 사업을 알리고자 용산구에서 진행되는 자원봉사·사회복지 박람회 부스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재단 산하시설인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의 자원봉사단체인 은빛하늘지기 봉사단의 요술풍선 체험부스와, 캘리그래피 열쇠고리 부스 두 개의 팀을 꾸려 재단을 알리는 행사를 풍성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혈액이 온몸에 잘 돌지 못해 푸른빛을 띠는 선천성 심장병 아이들의 아픔을 알리고, 아이들을 돕자는 파란 손을 위한 기적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백여명의 인파로 북적거렸던 용산구 자원봉사·사회복지 박람회에선 한국선의복지재단의 소개와 캘리그래피, 풍선아트를 진행하였는데, 모든 재료들을 다 소진할 만큼 오전부터 오후까지 꽉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내년에도 용산구 사회복지 박람회 체험부스에서 한국선의복지재단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단 및 사업소개를 듣고, 캘리그래피를 기다리는 학생들



캘리그래피



풍선아트 체험과 재단사업소개



복지관 풍선아트 자원봉사자와 복지관, 재단 사무국 직원들

끝없는 사랑
Endless Love over 35 years

창립 35주년 특집

2017 한국선의복지재단 사업보고

| 해외사업보고

| 국내사업보고

| 후원보고



|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무료 수술 사업

- + 사업명 :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무료수술사업
- + 사업기간 : 2002년 ~ 현재까지
- + 수혜대상 : 개발도상국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무료 수술 사업현황

베트남	208
캄보디아	20
필리핀	64
중국	23
라오스	11
A국	3
말레이시아	4
미얀마	1
몽골	9
인도네시아	1
총수술인원	344명

2002년 ~ 현재(2017년 11월 기준)



+ 사업소개

이 사업은 2002년 베트남 중부 3명의 선천성 심기형을 가진 어린이를 수술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차차 베트남 전역,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이집트, 우크라이나 등으로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선의복지재단은 현재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344명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 두근두근 가슴 뛰는 내일을 선물 합니다

파래진 입술과 피부, 더딘 성장, 여러 합병증...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의 구조에 결함이 있는 질환으로 선천성 심장병은 85%가 원인불명으로 발병 이유를 알기 어렵고 수술 시기를 놓쳐버리면 조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입니다.

지금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등과 같은 해외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은 열악한 의료 환경 탓에 제대로 된 진찰 조차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 선천성 심장병은 한 번의 수술로도
완치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하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심장병 환자의 수는 늘어가지만 검사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사망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한국선의회복지재단은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무료로 수술을 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선천성 심장병 수술 지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료를 수집합니다.



수술 대상 아동을 찾습니다.



여권을 발급하고
한국으로 초청합니다.



입국과 입원을 돕습니다.



정밀검사와 수술을
지원합니다.



즐거운 추억을 선물합니다.



귀국을 돕고 새 삶을
지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돕습니다.

- + 대상국가 : 필리핀 실랑
- + 입국아동 : 존(John, 11세), 크리스난(Chrizan, 3세), 찰스(Charles, 1세)
- + 입국일시 : 2017년 5월 29일
- + 수술병원 : 부천 세종병원
- + 후 원 : 신촌성결교회, 광명중앙교회, 세종병원, 유진크레베스, 한국선의복지재단

| 82차 심장병 어린이 수술 결과 보고

2017년 5월 29일 월요일. 필리핀에서 3명의 환아와 3명의 보호자, 그리고 인솔자 겸 통역자로 Dr.PAU를 포함한 82차 필리핀 심장병 어린이들이 한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공항에는 이번 차수 아동들을 후원해주신 신촌성결교회, 광명중앙성결교회의 목사님 및 전도사님들과 한국선의복지재단의 몇몇 이사님들이 공항으로 아이들을 마중 나와 환아들의 입국을 환영해주셨습니다. 공항에서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환아들과 보호자들은 바로 부천세종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존(11살/남)아동과 찰스(1살/남)아동은 VSD(심실중격결손증), PDA(동맥관개존증) 아동으로 단 1번의 수술, 시술을 받고 약 한달 여 만인 6월 15일에 필리핀으로 귀국했지만 VSD판정을 받은 크리스난(3살/여)아동은 생각보다 병의 상태가 심해 1번의 시술과 2번의 시술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폐동맥 고혈압증으로 한국에 더 머물며 치료한 후 7월 11일 필리핀으로 돌아갔습니다.





82차 필리핀 심장병 어린이 찰스



82차 필리핀 심장병 어린이 크리스난



82차 필리핀 심장병 어린이 존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존



광명중앙교회 후원자님들과 크리스난과 함께



귀국 전 63빌딩 관광

- + 대상국가 : 몽골
- + 입국아동 : 아민 에르덴(Amin-Erdene, 7개월)
- + 입국일시 : 2017년 6월 15일
- + 수술병원 :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 + 후 원 : 성락성결교회,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한국선의복지재단

| 83차 심장병 어린이 수술 결과 보고

2017년 6월 15일 새벽 3시 20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눈이 아주 예쁜 아기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아동의 이름은 아민 에르덴(OTGONBAT AMIN-ERDENE)으로 선천성 심장병수술을 위해 엄마, 아빠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비행기를 타고 와서 힘들텐데도 불구하고 아동은 처음 보는 이들에게 생긋생긋 예쁘게 웃어주는 순한 아이였습니다.

이대목동병원으로 입원한 아민 에르덴 아동의 선천성 심장병은 VSD(심실중격결손증)로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VSD 환자들보다 구멍이 조금 더 큰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여 관계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아동은 회복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7월 9일 몽골 울란바토르로 귀국하였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아민 에르덴과 엄마 아빠



수술 전 검진



회복중



귀국



수술 후 검진



수술을 지도하신 이대 목동 병원 서동만 교수님과 아민 에르덴 보호자와 함께

- + 대상국가 : 필리핀
- + 입국아동 : 카일(Kyle, 4세), 니콜(Nicole, 2세), 마일즈(Miles, 3세)
- + 입국일시 : 2017년 8월 17일
- + 수술병원 : 신촌세브란스병원
- + 후 원 : 신촌세브란스병원, 한국선의복지재단

| 84차 심장병 어린이 수술 결과 보고

2017년 8월 17일 목요일. 필리핀에서 3명의 환아와 3명의 보호자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84차 필리핀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은 신촌세브란스병원의 후원으로 입원하여 시술과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들의 이름은 카일(4살/남), 니콜(2살/여), 마일즈(3살/여)로 비교적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했던 니콜 아동은 PDA(동맥관개존증)로 1번의 간단한 시술 후 9월 1일 필리핀으로 귀국하였고 카일 아동은 VSD(심실중격결손증)아동으로 1번의 수술 후 9월 13일 건강하게 필리핀으로 귀국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일즈 아동은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입원 첫 날부터 중환자실로 격리되어 치료를 받기 시작했던 마일즈는 필리핀 현지 진단 시 TOF(팔로씨 4징후)판정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결과 정확한 진단명이 TOF보다 더 심각한 DORV(양대혈관우심실기시증)으로 판정이 나면서 난관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마일즈 아동은 2번의 시술과 1번의 큰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예후가 좋지 않아 회복을 위해 치료를 받다가 10월 27일 건강한 모습으로 필리핀 귀국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84차 필리핀 심장병 어린이 니콜



84차 필리핀 심장병 어린이 마일즈



84차 필리핀 심장병 어린이 카인



수술직후 마일즈



운영이사회 이사진 84차 필리핀 심장병 어린이 방문



운영이사회 이사진 84차 필리핀 심장병 어린이 방문

| 해외아동수술지원사업

- + 사업명 : 해외아동수술지원사업
- + 사업기간 : 2001년 ~ 현재까지
- + 수혜대상 : 개발도상국 빈곤가정 어린이

해외아동수술지원사업현황보고

시행연도	시행차수	국가	병명	병원
2008	1	베트남	구순구개열	세종병원
2009	2	베트남	전신화상	연세의료원 재활병원
2011	3	베트남	구순구개열	분당서울대병원
2012	4	캄보디아	스터지웨버증후군	신촌세브란스
2013	5	베트남	선천성 골형성 부전증	삼성서울병원
2014	6	필리핀	선천성 감각 신경성 난청	부천성모병원
2015	7	인도네시아	양성종양	부천성모병원
2016	8	필리핀	탈장	PGH (Philippine General Hospital)
2016	9	베트남	백내장	Ho Chi Minh Children's Hospital
2016	10	몽골	만곡족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2017	11	베트남	고엽제 피해 기형인 손과 발가락	호치민 환미병원
2017	12	인도네시아	혈관종괴증	부천성모병원

+ 사업소개

이 사업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치료받지 못하고,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치료 및 수술이 필요한 환아들에게 수술비 등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11차 아동수술지원사업 결과 보고



- + 대상국가 : 베트남
- + 입국아동 : 닷 (Nguyen Tien Dat)
- + 수 술 일 : 2017.2.17
- + 수술병원 : 호치민 환미병원
- + 병 명 : 발가락 기형(고엽제 2차 피해아동으로 손가락과 발가락이 전부 붙어 있는 채로 태어남)
- + 후 원 : 해피빈, 한국선의복지재단



CT 촬영중인 닷



닷의 다리 상태 엑스레이



검진중인 닷



수술 후 회복 중인 닷과 어머니

한국선의복지재단
2017
한국선의복지재단
사업보고
창립 35주년 특집

- + 대상국가 : 인도네시아 발리
- + 입국아동 : 크리스틴
- + 입국일시 : 2017년 7월 3일 2015년 1월 9일 1차 수술을 한국에서 받은 뒤, 2차 수술을 위해 한국을 방문
- + 수술병원 : 부천성모병원
- + 병명 : 혈관종양증(오른손의 종양이 점점 커져가는 질환)
- + 후원 : 부천온누리교회, 부천성모병원, 한국선의복지재단



| 12차 아동수술지원사업 결과 보고



수술 후 부천성모병원 의사선생님들과 크리스틴



크리스틴과 함께하는 천국잔치 (부천 온누리교회)

| 베트남법인/호치민지부

+ 주 소 : R4-80 Hung Gia 4 Phu my hung Q.7 Thanh Pho Ho Chi Minh VietNam
+ 연 락 처 : Tel. +84-12-0888-9446
+ 설립연도 : 베트남법인 2002년 / 호치민지부 2013년
+ 설립취지 : 2001년도부터 베트남 선천성 심장병 아동들의 수술 및 후원을 시작하면서 열악한 의료시설을
실감하고, 취약한 의료환경에 노출되어있는 빈곤지역 주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병원을 계획하면서 선의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활동보고

1) 야학 구정 행사 및 봄 방학

+ 장 소 : 야학교실
+ 행 사 일 : 2017년 1월 18일
+ 행사개요 : 어려운 환경으로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수학, 베트남어, 영어, 미술 등의 배움을 제공하는 야학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정에는 야학 학생들을 센터로 초대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나눔을 가지고 선물을 증정하는 구정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장애인 공동체 시설 장애인 분들, 바자회에 물품 판매자로 직접 참여

+ 장 소 : 한국 국제학교
+ 행 사 일 : 2017년 5월 13일
+ 행사개요 : 호치민 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흥안 장애인센터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악기 수업을 매 주 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선의 재단과 장애인 시설 대상자들이 함께 한국 국제학교에서 개최하는 한인바자회 행사에서 그동안 손수 제작한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판매자로서 참여하였습니다.



3) 오케스트라 공연과 선천성 심장병 수술 후원금 모금

+ 장 소 : 호치민 1군 시내

+ 행 사 일 : 2017년 6월 25일

+ 행사개요 : 호치민 지부에서는 연 3회,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환아들을 발굴하고 후원금 모금을 하기 위해 오케스트라 공연을 진행합니다. 6월 25일 오케스트라 공연은 성황리에 잘 마치고, 큰 감동을 받은 관객 분들의 마음이 모여 33,000,000동(163만3500원)의 후원금을 선천성 심장병 아동인 '닷'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미국 뉴욕법인

+ 주 소 : 35-74 162st Flushing NY 11358, USA
+ 연 락 처 : Tel. 516-721-8101 Fax. 347-732-9459
+ 홈페이지 : <http://nycgh.org/>
+ 이 메 일 : sunnyusany@yahoo.com
+ 설립연도 : 2002년 5월
+ 설립취지 : 2002년 5월 한국선의복지재단과 뜻을 같이 하는 교민들의 꾸준한 기도 모임 끝에 설립되었습니다. 뉴욕지역 노숙자사역, 청소년사역, 북한선교사역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해왔고, 2007년부터 뉴욕 크리스천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7월 23일 정식으로 NGO 허가를 받아 회원 및 기부자들에게 Tax Deduction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조직구성

1. 역대이사장

1대 정인국, 2대 서홍석, 3대 성기로
미국법인 뉴욕지회장 | 최문섭

2. 상임이사회

이사장 | 성기로 부이사장 | 공석 부회장 | 황신호 회장 | 최문섭
총무 | 정민철 감사 | 송성렬 회계/서기 | 김수영
상임이사 | 박신화, 장세활, 백남걸, 장용, 정귀련, 정인국, 최재복, 정광호, 황현성

3. 뉴욕선교사의집 운영이사회

후원회장 | 백달영
간사 | 뉴욕 선교사의 집 - 김순희 / 뉴욕선교관 - 김경자 전도사
관리 | 뉴욕 선교사의 집 - 허준 / 뉴욕선교관 - 김 제이슨
이사 | 고경실, 박현순, 유숙자, 김광자, 장옥화, 황현성, 이성기, 명영숙, 지윤구, 이종숙, 홍종민, 한진숙, 황신혜

2017년 활동보고

1) 선교관 운영

2007년 문을 연 뉴욕 선교사의 집은 그동안 선교사님들의 쉼터로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고 국제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한정적인 공간으로 오시는 분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 2016년 뉴욕 선교사의 집 새 선교관을 열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뉴욕 선교사의 집



뉴욕 선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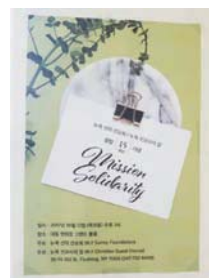
2) 뉴욕 선교사의 집 소식지 '아름다운 발' 발간

뉴욕 선교사의 집에서는, 매 분기마다 소식지 '아름다운 발'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3) 뉴욕 선의선교회/뉴욕 선교사의 집 창립 15주년 기념 행사

- 일자 : 2017년 10월 12일
- 장소 : 대동 연회장 그랜드볼룸



| 미국 LA지회

+ 주 소 : 1020 N. Richman Knolls, Fullerton, CA 92835, USA
+ 연 락 처 : Tel. 714-773-5578 / 714-726-5948
+ 설립연도 : 2008년 8월
+ 설립취지 : Sunny Foundation LA는 2008년 한 달에 한 번 지역 홈리스들의 아침을 제공하던 십 여명으로 시작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초창기 멤버들은 성경일독과 기도로 마음과 뜻을 모으며 출발하였습니다. 한 달에 10불씩 모이는 소액으로도 모아지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선의를 펼칠 수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2017년 9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조직구성

고문 | 박광철 목사, 박충기 목사

이사 | 이정원, 임영희, 고서경, 오영순, 최숙희

감사 | 주수봉 회장 | 주명은 총무 | 양승안 회계 | 김명희 홍보·장식 | 신숙희

회원명단

고서경, 권명희, 김명희, 김복숙, 김연희, 김영실, 김영창, 김정민, 김준일, 김진연, 문영희, 박길순, 박영자, 박춘자, 방찬희, 서미선, 신경희, 신숙희, 양승안, 양신숙, 오수연, 오영순, 이영미, 이정미, 이정원, 이현덕, 이희숙, 이혜옥, 임영희, 윤귀희, 유금숙, 전경자, 정복자, 정일미, 장윤섭, 장경아, 조남숙, 주수봉, 주명은, 최숙희, 최옥주, 홍인순, Hodah, Jenie Hwang, James Fuller, Xiao Jiang

2017년 활동보고

1) Sunny Foundation LA 후원 단체 방문

C 선교회: 매달 N국 '미디어 선교' 후원. 여명선교회
(New Daybreak Ministry)
무지개 가족 선교회(Rainbow Family Ministry)

2) Role Foundation

일주일에 세번씩 신장투석을 하셔야 하는 중증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 부터 매주 토요일 새벽마다 한



주도 빠짐없이 LA 다운타운 노숙자분들을 섬겨오시는 이진덕 집사님의 Role Foundation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3) Livingstone Community Health Clinic

5년 전 지인을 통해 한국 의사분이 인종을 망라한 의료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후원 중에 있습니다.

2010년부터 커뮤니티를 섬기는 비전으로 진료를 시작하여 (한국인 1/3, 타인종 2/3) 양방, 한방, 치과, Art & Music therapy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엔 한동안 비어있던 치과진료가 Sunny에서 소개해 드린 치과 의사의 섬김으로 재개되었고, 또한 작년에 이어 열린 저소득층을 위한 '2차 Health Fair'에도 봉사자들을 위한 베이글과 크림치즈 커피를 준비했고 채혈, 진행 등을 도왔습니다.



4) Penny 선교회(Penny Mission USA)

7월 정기 기도 모임에 박미영 사모님을 초청하여 북한 방문 이야기를 듣고, Penny 선교회의 사역 중 새롭게 시작된 북한 나진 외곽의 '해양 유치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유치원에서 32명의 아이들을 3명의 선생님들이 돌보고 있는데, 엄마들이 어린 아이들 젖을 먹이다가 바로 집단농장에 일을 하기 위해 일터로 나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때가 되면 이 곳에 기독교 학교가 운영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5) 이웃사랑 사역

Sunny Foundation LA에서는 창립 9주년을 맞아 회원들이 쓰지 않는 물건들을 정성껏 모아 Grage Sale 기금을 마련하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모아진 수익금은 '이웃사랑 사역' 이라는 이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전달하였습니다.



6) 그 외 특별 후원 사역

중국 찬양사역자 양성학교인 'Noah Institute of Music'를 후원했고 신학생 2명도 후원할 예정입니다.

| 우크라이나법인

+ 주 소 : Prospect Pravdy 31A KB. 251 Kiev Ukraine
+ 연 락 처 : +38067-130-8089
+ 설립연도 : 2013년 1월
+ 설립취지 : 우크라이나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격려하는 선한 뜻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17년 활동보고

1) 출판사업

+ 일 시 : 2017년 7월

우크라이나는 추운 기후로 인해 술 문화가 발달되어 길거리에 술꾼들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 현지인들의 계몽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선의 우크라이나 지부에서는 묵상집과 교양도서를 연 6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출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판 된 묵상집 및 교양도서는 사회복지기관, 교도소, 군부대, 교회 등으로 보급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묵상집 20호가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로 출간되었습니다. 묵상집 20호는 선의 출판 시작 5년을 의미합니다. 지난 5년을 돌아보고 감사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출판 사업에 힘쓸 예정입니다.



2) 현지 하계 지도자 세미나

+ 기 간 : 2017년 8월 22 ~ 25일
+ 장 소 : 키예프 근교
+ 인 원 : 250명

지도자 세미나는 11년간 우크라이나 전역의 교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 과정으로 현지 우크라이나 지부 김태한 대표가 3년간 책임자로 준비하고, 인도하고 있는 세미나입니다. 8월에도 현지에서 함

게 사역하고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3) 영국출장

+ 기 간 : 2017년 10월 10 ~ 14일

지난 10월 10일 에는 영국 시어선교회(Seer Ministria)의 초청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출장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출판사업을 위해서였습니다. 5년간의 신실한 지원과 기도를 아끼지 않으셨던 고마운 분들을 만나 상황을 보고하고 앞으로 출판사업의 향후 계획과 협력 방법을 의논하였습니다. 런던의 SEER 선교회에 방문하여 관계자 분들과 교제할 수 있어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4) 아동 심장병 수술 지원 사업

+ 일 시 : 2017년 10월 10일

우크라이나 지부에서는 아동심장병원과 아동의 수술을 지원하고, 수술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에는 건강이 약해 몇 달간 수술을 연기했던 베로니카의 수술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부 김태한 대표는 베로니카의 입원실에 방문하여 그 가정을 위로하고, 격려비를 전달하였습니다. 다행히 베로니카의 수술은 무사히 잘 마치고, 회복이 조금 더디지만 경과가 좋다고 합니다.



| 경주지회 사업보고

+ 경주지회 : 한국선의복지재단 경주지회는,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사랑과 봉사를 베풀고자 1995년 창립되었습니다.
경주 지역의 선의를 모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사회봉사의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활동보고

- 1)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쌀 후원물품 전달
- 2) 한달 35명의 독거노인어르신과,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에게 후원금 전달
- 3) 독거 노인 어르신 요양원 방문하여 후원물품 전달
- 4)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수학 과외활동 진행

| 대구지회 사업보고

+ 대구지회 : 대구지회는 2000년도 대구지역에 거주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물질적 나눔의 장을 열어 생활에 안정을 기여하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시설을 갖추어 지속적인 복지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통합사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2017년 활동보고

1) 소외계층 기금마련 콘서트

LOVE 윤현석 팬텀싱어 M.S.G

대구 아양아트센터에서 지역 내 소외계층을 돕기위한 기금마련 콘서트를 9월19일 오후7시에 진행하였습니다. 락발라드 가수 윤현석과, MSG 팬텀싱어 성악그룹이 출연하였고, 또한 300여명의 쪽방촌거주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들 300여명을 초청하여 문화공연을 지원하였습니다.



2) 찾아가는 송년음악회 개최

매년 말 고아원, 노인복지요양원 등에 찾아가는 송년음악회를 개최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수준이 높은 문화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경남지회 사업보고

+ 경남지회 : 한국선의복지재단 경남지회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고자 2000년 3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외롭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찾아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을 전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참된 위로와 새로운 삶의 의지를 갖게 하는 일이 최우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활동보고

1) 소년소녀가정방문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발굴하고, 각 가정에 후원금을 전달 및 가정방문을 실시

2) 함안 사랑의 쉼터방문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쉼터에 명절에 방문하여 식사 제공 및 격려

3) 사랑의 집 식당봉사

세달에 한 번씩 각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100명 안팎의 식사 대접 및 성경공부 예배 진행

4) 삼천포 한마음 병원

치매 및 중증노인 요양시설에 명절에 방문하여 200인분의 정성스런 음식 준비와 함께 예배 진행



|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 16길 44-9(봉천동)
+ 연 락 처 : Tel.02-886-9941 / Fax.02-874-4048, gw9941@hanmail.net
+ 홈페이지 : www.goodwill.or.kr
+ 설립연도 : 1987년 11월 26일
+ 설립취지 : 소년소녀가장들을 비롯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1982년 선의은행(현한국선의복지재단)이 출범하였고, 이러한 사역을 체계화시키기 위해 1987년 11월에 한국선의은행복지관(현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을 설립하였습니다.

조직구성

1. 운영위원회

위원장 | 최인광 위원장

위원 | 한미경, 안춘희, 박로성, 이정희, 김남석, 김동준, 은선경, 소은미

2. 조직

관장 | 한미경

운영기획팀 | 선정미, 장용식, 이주희, 여선경

서비스제공팀 | 이정희, 조은별, 강귀연, 김승철, 이효경, 강현숙

사례관리팀 | 최유민, 고요한, 안희원, 이민지, 김경애, 차민주

지역사회조직팀 | 이가영, 윤시온, 윤정아, 김별, 강민지

3. 시설현황

지상 4층 | 피아노교실, 컴퓨터 교실, 창고

지상 3층 | 관장실, 사무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가온교실, 누리교실

지상 2층 | 대강당, 풀빛교실, 솔빛교실

지상 1층 | 선의어린이집, 꿈빛교실, 햇빛교실

지하 1층 | 경로식당, 은빛교실, 별빛교실, 달빛교실, 수선실, 주차장

2017년 활동보고

1) 사례관리기능사업

가족간의 갈등, 마음의 상처, 경제적 위기 등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역주민을 돕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강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그 강점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복지관이 협력하여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서비스제공기능사업

노년에 즐거움과 활기를 더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를 위한 프로그램,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무료급식사업,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을 돕는 일자리 사업단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 야간 돌봄, 진로설계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지역사회조직화기능사업

주민들이 이웃들과 일상 속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공통의 관심사를 매개로 한 취미모임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부, 남성, 어르신들의 모임과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1·2·3세대 통합 활동들을 통해 이웃관계 단절과 세대 간 단절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카라미술통아리



우리 함께 채소키워요



지역사회 캠페인



청소년 문화활동 화폐박물관



해피시니어스쿨 발표회

| 선의어린이집

-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 16길 44-9 1층
- + 연 락 처 : Tel.02-885-9770 / E-mail : sunhee9770@hanmail.net
- + 홈페이지 : Homepage. cafe.daum.net/happysunnee
- + 설립연도 : 1994년 3월
- + 설립취지 : 선의어린이집은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아름다운 생각과 말, 행동을 통해 기본적인 사회성을 기르고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행복한 아이들로 성장하여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른 인성과 창의력, 사고력을 돕는 교육활동을 진행합니다.
- + 교육목표 : 1)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하기
2) 기초적인 인지능력과 기본생활습관 기르기
3) 감성과 창의력향상 돕기
4) 나, 이웃,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갖기

2017년 활동보고

- 1) 자유선택활동, 놀이를 통한 인지학습, 미술활동, 기본생활교육으로 균형있는 발달 도모
- 2) 현장학습 및 견학으로 다양한 체험과 자연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
- 3) 다양한 부모 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 부모교육, 참여수업, 운영위원회)실시
- 4) 외부강사에 의한 특기교육 실시(신체활동, 음률활동)
- 5) 지역사회연계활동으로 일상생활, 사회활동의 직접 경험을 유도



지역사회연계활동-주민센터방문



지역사회연계활동 - 놀이터 돌아보기



특기교육 - 유아체육



특기교육 - 오르프술레



부모참여 - 열린어린이집/바깥놀이



부모참여 - 열린어린이집/만들기



현장학습 - 주령주령동물원



현장학습 - 뮤지컬관람



자유선택활동 - 물놀이



자유선택활동 - 기차여행가요

한국선의복지재단
2017
한국선의복지재단
사업보고
창립 35주년 특집

| 선의영동연수원

+ 선의 영동 연수원 : 각종 과실나무로 뒤덮인 무공해 청정마을에 자리잡고 있는 선의연수원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선의를 베풀며 여유와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의 연수원 공간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지역 구성원들의 생활의 안정에 기여합니다.

2017년 활동보고

1) 선의 영동연수원 장소대여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요청에 따른 강당 및 운동장 대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밀반찬 지원 서비스

지역 내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월 2회 밀반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